

고구려와 중원문화*

최종택**

-
- I. 머리말
 - II. 중원지역의 공간적 범위
 - III. 중원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
 - IV. 중원지역 고구려 유적의 역사적 함의
 - V. 맺음말
-

【국문초록】

최근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중원 역사문화권’이 포함됨에 따라 중원역사문화권의 시공간적 범위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원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중원지역의 고구려 유적·유물에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원지역 또는 중원문화권의 공간적 범위와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대체로 현재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일원을 공간적 범위로 하되, 경기, 강원, 경북 등 주변 지역을 외연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과 통시적인

* 본 논문은 충청북도 주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주관 학술회의 『융합의 공간, 中原:中原과 고구려』(2022.09.22.)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관점에서 엄격하게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지역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견해도 상존하며, 이는 중원문화의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중원지역은 단일 국가의 중심으로 기능한 적이 없으며,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변경이자 교차점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중원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변경, 포용과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중원지역의 고구려 유적은 관방유적과 고분군 및 생활유적 등이 있으며, 관방유적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충주지역에 위치한 고분군은 대체로 5세기 중엽경으로 편년되는데, 이는 5세기 중엽경 북한강수계를 따라 충주지역을 확보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밖에 진천 대모산성과 송두리유적, 청주 정북동토성, 세종 남성골산성, 세종 나성과 대평리유적, 대전 월평동유적 등은 5세기 후엽의 짧은 시간 동안에 사용된 것으로 475년 한성공함 이후 웅진 방면으로 남하한 고구려 군이 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밖에 진천 회죽리와 청원 상봉리에서도 고구려 금제이식이 채집되었는데, 남성골산성에서 출토된 금제이식과 함께 당시 남하한 고구려 군의 위계가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상의 고구려 유적은 존속기간이 길지 않아 대체로 6세기를 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백제 왕실의 안정과 한성수복 노력의 결과 500년을 전후한 시점에 다시 한강 이북의 아차산 일원으로 후퇴하여 보루를 구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중원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유적은 5세기 후엽 고구려와 백제의 각축 양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물적 증거라는 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 중원지역, 중원문화, 호서지역, 충주, 청주, 고구려, 관방시설, 고분

I. 머리말

1979년에 충청북도 중원군 가금면 용전리에서 중원고구려비(이하 ‘충주고구려비’)가 발견된 이후 ‘중원지역’ 또는 ‘중원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후 1980년대 초반 충주댐 및 대청댐 수몰지구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수의 유적이 조사되면서 중원지역에서 고고학적 조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중원지역에서 구조를 갖춘 고구려 유적이 조사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물론 1963년 진천 회죽리에서 금제이식 1점이 발견되었으며, 1976년에는 청원 상봉리에서도 금제이식 1점이 발견되었으나, 성격이 확실한 유적이 조사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94년 대전 월평동유적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면서 중원지역에서도 고구려 유적이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충주 단월동고분의 조사과정에서 신라 고분과 함께 고구려 고분이 조사되었으나, 당시에는 이를 고구려 고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1996년 진천의 대모산성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고구려 토기가 채집되었으나 이 역시 조사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2001년에는 월평동유적과 인접한 월평동산성 발굴조사에서 백제 사비기에 축조된 성벽 아래층에서 고구려 토기가 조사되었으며, 같은 해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 위치한 남성골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구조가 확실한 고구려 성곽과 다량의 고구려 유물이 조사되면서 중원지역 고구려 유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진천 대모산성 주변의 송두리유적의 발굴과정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2006년에는 남성골산성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충주 두정리에서 5기의 고구려 고분이 발굴되었으며, 2010년에는 인근의 탑평리에서도 고구려 토기가 조사되었다. 2012년에는 세종 나성유적 시굴조사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고, 2015년에는 나성 주변의 대평리유적 조사

과정에서도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청주 정북동토성의 해자에서도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으며, 2018년에는 제천시 교동유적의 석곽묘에서 2점의 고구려 금제이식이 출토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원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의 조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곽, 고분, 생활유적 등 조사된 유적의 종류도 다양하다. 현재까지의 조사된 자료를 통해 볼 때 이 유적들은 5세기대 고구려와 신라의 교통로 주변, 또는 한성공함 이후 고구려 군의 남하 경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원지역 또는 중원문화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조사된 각 유적의 구조와 출토유물에 대해 살펴본 후 중원지역 고구려 유적의 역사적 성격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Ⅱ. 중원지역의 공간적 범위

2020년 6월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2021년 6월 1일 시행)’에는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 등 6개 역사문화권을 설정하였으며, 2022년 1월에 일부 개정된 법률에는 예맥역사문화권과 함께 중원역사문화권이 추가되었다. 여기에서는 중원역사문화권을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중원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중원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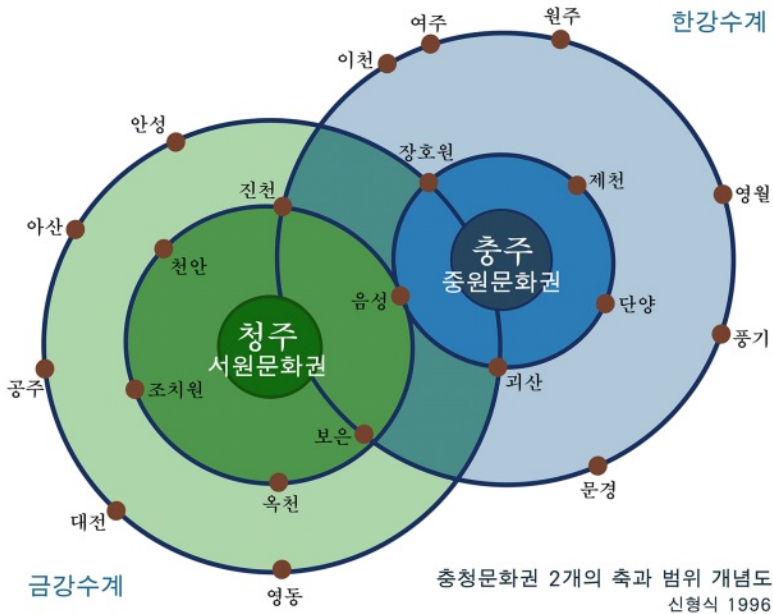
1) 중원문화권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구석기시대를 포함하는 선사시대 문화상을 다룬 사례도 있지만(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5; 1996; 국립청주박물관·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대체로 역사시대 이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도 중원지역에 대한 간략한 조사가 있었으며, 광복 후 1960년 고고미술동인회의 중원 미륵석굴사지에 대한 조사를 필두로 중원지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1967년에는 천안에 단국대학교박물관이 설립된 후 충북지역에 대한 연차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977년에는 청주대학교박물관에서 중원 미륵석굴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978년 단양에서 신라 적성비가 발견되고, 1979년에는 중원에서 고구려비가 발견되면서 중원지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의 조사나 관심은 충주 및 중원을 중심으로한 지방사에 대한 것이었으며, 본격적인 조사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조유전 1995: 93).

1979년 국토개발종합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중원문화권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 예정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1982년에는 정부에서 5대 문화권(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백제문화권, 영산강문화권, 중원문화권)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통해 단일 고대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문화권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충청북도와 중원군에서는 중원문화권 유적 발굴조사를 위해 중원문화권 유적분포도 작성을 충북대학교박물관에 의뢰하였는데, 조사구역은 충주, 중원, 제천, 제원, 단양, 괴산, 음성, 청주, 청원, 보은, 진천 등 충청북도 지역 외에도 경기도 여주, 이천, 강원도 영월, 원주, 원성, 경상북도 문경, 예천, 영주, 영풍, 봉화, 안동, 상주 등 인접 지역을 포함한 23개 군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었다(조유전 1995: 94). 한편 1990년에 간행된 충북대학교박물관의 『중원 문화사적 관광개발 계획 문화유적 조사보고서』에서는 중원문화권에 대한 이러한 광역의 개념이 충주, 중원, 제천, 제원, 단양 등 남한강유역권으로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는 타지역을 배제하고자 하는 지역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한병삼 1995: 7).

중원문화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대체로 통용되지만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청주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 중원지역 또는 중원문화를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입장은 역사적 맥락을 중요시한다. 즉, 중원이라는 지명은 신라 경덕왕이 중원경을 설치한 742년 부터 고려 태조가 충주목으로 개칭한 940년까지 사용된 것이므로 중원문화는 “통일신라시대 중원경에 형성된 문화”로 국한하고, 중원지역도 충주 일원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원문화를 통시적으로는 “충주지역의 옛 문화”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넓게 잡아도 충주에 소경을 설치한 진흥왕 18년(557년)부터 940년까지 충주지역에 형성된 옛 문화로 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다(김영진 1995: 316).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할 때 중원문화라는 용어 대신 충주문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며, 충북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충북문화를 한강수계의 충주문화권과 금강수계의 청주문화권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김영진 1995: 322).

김영진이 제안한 역사적 맥락과 수계에 바탕한 협의의 중원문화권 개념은 신형식에 의해 대체로 받아들여지는데, 기존의 중원문화권을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남한강수계 지역으로 축소하고, 금강수계의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문화를 서원문화권 또는 호서문화권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충청문화권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그림 1). 그리고 각 문화권의 외연에 경기도와 강원도 및 경상북도 일부 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신형식 1996).



「그림 1: 충청문화권 2개의 축과 범위 개념도」
(신형식 1996: 그림 1 수정편집)

중원문화권을 남한강 하류의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은 다시 비판을 받는다. 즉, 충주와 청주는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의 회랑지대로서 양 지역 사이에는 백마령이라는 작은 고개만 있을 뿐 지역을 나눌만한 산맥이 없으며, 역사적 맥락으로 보아도 양 지역 모두 백제로부터 시작하여 삼국의 교쟁과 관련이 있다는 점,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각각 소경이 설치되었다는 점, 고려시대 이후 1천여 년을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 두 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굳이 구분하는 것 또한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차용걸 1996). 이에 신형식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다시 중원문화권을 충주지역과 청주지역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충주와 청주를 축으로 하는 충북지구의 문화로서 그 외연의 경

기와 강원 남부 및 경북 북부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정의하되 중원문화권은 특정한 지역 명칭의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였다(신형식 2001: 5~6).

위에서 중원지역과 중원문화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몇 가지 논의를 살펴보았는데, 중원이라는 용어는 지리적 특성 외에도 역사적 맥락 즉, 통시적 맥락이 함께 고려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중원지역은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남한강 상류지역에 국한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금강 상류지역과 주변 지역이 포함되며, 대체로 광의의 개념이 통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1987년에 설립된 국립청주박물관의 소개를 보면 “충북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연구·전시하고,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원문화의 특색을 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²⁾ 2007년에 설립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중원문화권역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소개하고, 충북·강원·경북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중원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중원문화의 실체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관련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³⁾ 또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중원지역의 산성과 고분에 대한 도록에는 충청북도지역의 유적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08; 2009).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은 2022년 1월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중원역사문화권을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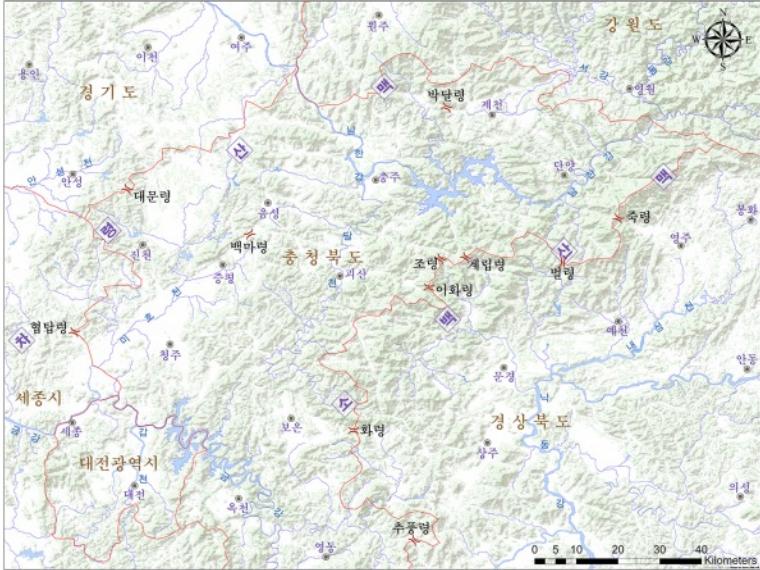
2) 국립청주박물관 홈페이지

(<https://cheongju.museum.go.kr/www/contents.do?key=463&nbar=s>)

3)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nrich.go.kr/jungwon/page.do?menuIdx=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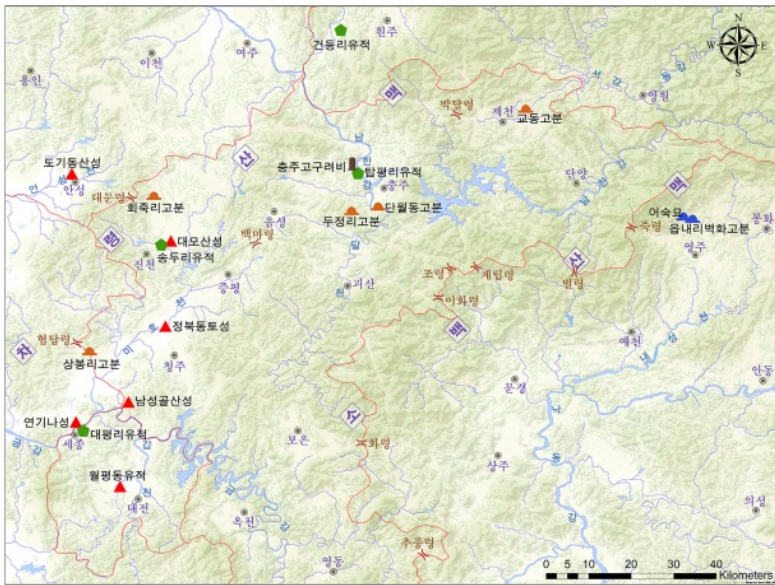
광의의 공간적 범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림 2: 중원지역 지형과 수계망」(© 최종택)

이상을 종합하면 광의의 개념으로 중원문화권 또는 중원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는 동-서로 펼쳐진 회랑지대로서 오늘날 행정구역으로는 충청북도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그림 2). 중원지역의 외연으로는 경기도 남부의 안성, 이천, 여주와 강원도 남부의 원주, 영월, 경상북도 북부의 봉화, 영주, 문경, 상주, 그리고 대전과 세종시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중원지역을 충주(중원경) 및 제천일대의 동쪽과 청주(서원경), 진천 일대의 서쪽, 복원소경이 설치되었던 북쪽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지만(성정용 2021: 21), 음성의 백마령을 경계로 동쪽의 충주지역과 서쪽의 청주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쪽 지역은 남한강 상류의 충주를 중심으로 제천, 단양지역에

해당하며, 단양에서 남한강을 따라 영월지역으로 연결되고, 제천에서 박달재를 넘으면 북쪽의 원주지역과 연결되며, 소백산맥의 죽령, 별령, 계림령, 조령, 이화령 등 크고 작은 고개를 통해 남쪽의 영주, 예천, 문경, 상주지역과 연결된다. 서쪽 지역은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이 동서를 가로지르는데, 청주, 진천, 증평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남으로는 금강 상류의 옥천, 영동지역에 이르고, 서로는 전의, 조치원, 대전지역으로 연결된다.



「그림 3: 중원지역 고구려 유적 분포도」(© 최종택)

Ⅲ. 중원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

중원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유적은 관방유적과 고분 및 생활유적으로 대별된다.⁴⁾ 관방유적은 진천 대모산성, 청주 정북동토성, 세종 남성골산성, 세종 나성, 대전 월평동유적 등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⁵⁾ 고분은 충주 두정리고분과 단월동고분, 제천 교동고분 등에 대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단월동고분과 교동고분은 신라 이후의 고분과 같은 구역에서 몇 기 발굴되었지만 두정리고분은 5기의 고분이 열상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고구려 고분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그밖에 진천 회죽리와 청원 상봉리에서 각각 금제 이식 1점씩 발견되었는데, 청원 상봉리유적은 원래 고분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박영복·김성명 1990: 585), 진천 회죽리 역시 고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유적으로는 충주 탑평리유적과 진천 송두리유적, 세종 대평리유적 등이 있는데, 발굴조사를 통해 소량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서 유적의 성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밖에 중원지역 외연에 해당하는 안성 도기동산성과 원주 건동리유적 등이 조사되었으며, 영주지역에는 어숙묘와 읍내리벽화고분 등 고구려계 벽화가 그려진 신라 고분 2기가 분포하고 있다(그림 3). 이하 각 유적별 조사현황과 유구의 성격 및 출토유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 이 장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발표자의 기존 글(최종택 2016)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5) 세종 나성과 대전 월평동유적은 중원지역 외연에 해당하지만 크게는 금강수계에 포함되어 중원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포함하여 다룬다.

1. 관방유적

1) 진천 대모산성과 송두리유적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산1-5번지 일대에 위치한 大母山城은 할미성으로도 불리며, 1990년 충청북도 기념물 제 83호로 지정되었다. 대모산성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며,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母山城으로 비정되기도 하였으나(李丙燾 1972: 446),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1980년 민덕식에 의한 현지조사 내용이 보고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기 시작했으며(閔德植 1980a; 1980b), 1996년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의 지표조사를 통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다(車勇杰·盧秉湜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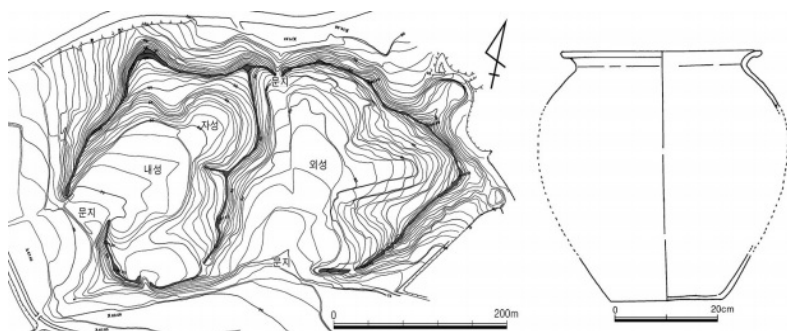
차령산맥의 남단에 위치한 진천지역은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의 상류지역으로 비교적 너른 평야가 형성되어있고, 대모산성은 이러한 평야지대와 연결된 야트막한 구릉에 자리하고 있다. 성의 북쪽으로는 미호천이 서남방향으로 흘러 성의 동쪽에서 남행하며, 성의 남쪽으로는 백곡천이 서남방으로 흘러 미호천과 합류하고, 성의 바로 남쪽에도 작은 지류가 서남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대모산성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각종 지리지와 읍지 등에 전하여 오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석성으로 기록되어 있다⁶⁾.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대모산성은 토성이며, 일부 지점에서는 석재가 확인되기도 한다. 대모산성은 북동-남서 방향의 구릉을 따라 부정타원형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그림 4의 좌), 성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100.89m, 가장 낮은 지점은 해발 71m이며, 제일 높은 곳의 상대비고는 30m가량 된다(車勇杰·盧秉湜

6) 大母山城, 在縣東六里 石築 周二千六百七十尺 丙有一井 今廢.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6, 鎭川縣 古跡條.

1996: 31). 대모산성은 서쪽의 내성과 동쪽의 외성으로 구성되어있는데,⁷⁾ 성의 전체 둘레는 1,250m가량이며, 내성과 외성 사이의 성벽을 포함하면 성벽의 총연장 길이는 1,457m 이다. 내성의 서남쪽 개구부는 문지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수구가 남아있는데, 수구와 이어지는 성 안쪽의 우물터는 유실되었다. 외성의 남쪽 개구부 역시 문지와 수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북쪽과 동쪽에도 각각 성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車勇杰·盧秉湜 1996: 31-57).

한편 외성의 북문지 주변과 남벽 일부 훼손된 성벽에 대한 시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성벽은 2차에 걸쳐 판축된 것으로 확인되며, 성벽 안팎은 할석으로 보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문지에 대한 시굴조사트렌치에서는 2개의 주혈이 조사되었는데, 보고서 본문에서는 북문지 시굴트렌치의 주혈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으나 도면과 도판에서 주혈을 확인할 수 있으며(車勇杰·盧秉湜 1996:



「그림 4: 진천 대모산성 평면도」

(車勇杰·盧秉湜 1996: 도면 3 및 도면 49-1 수정)

7) 민덕식은 대모산성은 본성과 내성, 외성으로 구분하였으며(閔德植 1980b: 11), 이후 지표조사보고서에서는 민덕식의 본성을 내성으로 칭하고, 내성의 동북지점 평탄면 즉 민덕식의 내성을 자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車勇杰·盧秉湜 1996: 25), 자성으로 구분한 지점이 성벽으로 구분되는지는 다소 모호한 점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141), 목책이나 영정주를 세웠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상의 조사상황을 종합해볼 때 대모산성의 성벽은 남한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관방 시설의 성벽과 유사한 형태이며, 성벽 안팎으로 영정주를 세우고 토축한 후 외부에 석축을 부가한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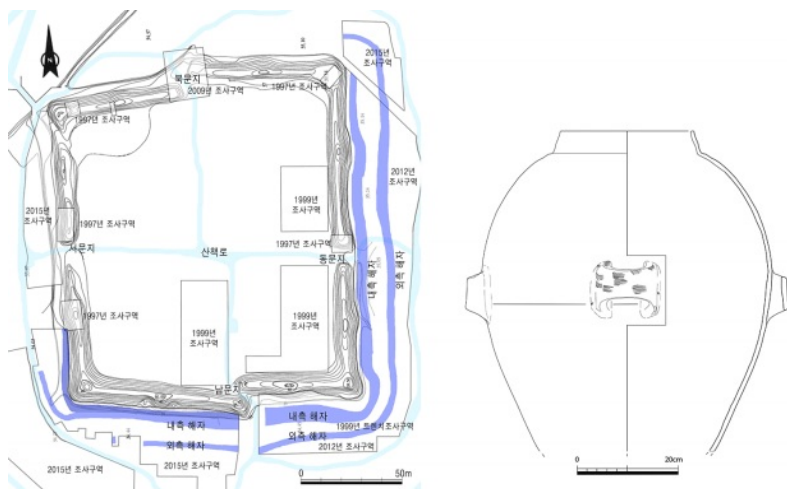
대모산성의 안팎에서는 다량의 백제토기편이 채집되었으며, 내성 북측의 농로 옆에서 고구려 토기 1개체분이 수습되었다. 동체부가 유실되었지만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 외반구연용으로 구경 50cm, 높이 50cm로 추정 복원된다. 정선된 니질태토이며, 동체 하단부에는 타날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구연부 및 동체 상부는 마연하였다(그림 4의 우). 형태적인 특징으로 보아 몽촌토성 출토 고구려 토기류와 비슷한 5세기 후엽경의 고구려 토기로 추정된다(崔鍾澤 2002). 대모산성은 안성 도기동산성에서 대문령을 통해 차령산맥을 넘어 정북동토성과 남성골산성으로 이어지는 남하 경로상에 위치하며, 발굴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조상의 특징이나 토기의 연대를 감안하면 475년 한성공함 이후 남하를 계속하던 고구려의 거점성으로 추정된다.

2) 청주 정북동토성

정북동토성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정북동 395-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9년 사적 제415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정북동토성은 청주분지 북쪽의 평야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성의 북쪽으로는 미호천이 동남방으로 흐르고 있으며, 성의 동쪽으로는 북행하는 무심천이 미호천과 합류하고 있다. 성의 동쪽으로는 상당산, 동남쪽으로는 우암산이 위치하고, 동북쪽으로는 이성산과 두타산, 북쪽으로는 목령산이 위치하는데, 이들 산에는 모두 삼국시대 산성이 위치해 있다(차용걸 외 2002: 13). 또한 정북동토

성에서 미호천을 따라 북쪽으로는 진천의 대모산성과 연결되며, 서남쪽에는 세종 남성골산성과 세종 나성이 위치하고 있다.

정북동토성은 1982년에 학계에 보고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그림 5의 좌). 1997년에는 성벽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문지 북쪽과 남쪽, 서북모서리 북벽, 동북모서리, 동문지 북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차용걸 외 1999). 1999년에는 성 안팎의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 내부 동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남모서리 외곽에 대한 트랜치조사를 실시하였다(차용걸 외 2002). 이어 2009년에는 북문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趙順欽·李庠燮 2013), 2012년에는 동벽 외부와 남동 모서리 외부의 해자를 조사하였고, 2015년에는 동북 모서리 외곽과 서벽과 남벽 외곽의 해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충북대학교박물관 2015; 2018).



「그림 5: 청주 정북동토성 평면도(趙順欽 외 2013의 도면 8과 충북대학교박물관 2015의 10쪽 사진을 합성하여 수정) 및 해자 출토 고구려 토기(충북대학교박물관 2018: 도면 85)」

정북동토성은 한반도에서는 유례가 드문 평지에 축조한 방형의 토성으로 동벽은 185m, 서벽은 165m, 남벽은 155m, 북벽은 170m이며, 전체 둘레는 675m이다(충북대학교박물관 2015; 2018). 문지는 동서남북 각 1개소씩 네 개가 있으며, 남문과 북문은 어긋 문이다(그림 5의 좌).

1997년 조사와 2009년 조사를 통해서 성벽의 구조가 비교적 자세히 밝혀졌는데, 체성 안팎으로 영정주를 세우고, 횡장목과 종장목을 연결한 후 정교하게 판축한 토성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장 정연한 형태로 조사된 서벽 안쪽의 영정주는 2.0~2.1m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목주의 지름은 평균 20~25cm이다. 이렇게 축조된 중심 토루는 78°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 단면 사다리꼴을 하고 있으며, 중심 토루 안팎으로 단면 직각삼각형의 내·외피토루를 구축하였다. 중심 토루의 기저부 너비는 7.0~7.1m이며, 성벽 상면의 폭은 6.2m 내외로 전체적으로 단면 사다리꼴 모양을 이루고 있다(趙順欽·李庠燮 2013: 56-58). 한편 성벽 바깥쪽으로는 2열의 해자가 돌아가고 있는데, 1차 해자가 폐기된 후 내외 2열의 2차 해자가 축조되었으며, 해자가 폐기된 후 통일신라시대의 석곽묘가 축조된 것이 확인되었다(충북대학교박물관 2015; 2018).

발굴조사를 통해 한성백제기 백제토기와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조사자들은 출토된 토기류와 토성의 구조를 근거로 토성의 축조시기를 4세기대로 추정하였으나(차용걸 외 1999; 차용걸 외 2002), 통일신라시대에 초축되었다는 견해(朴純發 2004)가 제시된 바 있으며, 이후 2009년 북문지에 대한 조사 이후 조사자는 삼국시대에 초축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趙順欽·李庠燮 2013). 그런데, 2015년의 조사에서 해자가 폐기된 후에 축조된 통일신라시대의 석곽묘가 조사되었으며, 석곽묘 주변과 주거지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다(충북대학교박물관 2015; 2018).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제작기법상 몽촌토성

출토품과 유사하여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며, 구체적으로는 475년 한성공함 이후로 추정된다.⁸⁾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북동토성은 늦어도 475년 이전 백제 한성기에 처음 축조되었으며, 475년 이후 고구려에 의해 재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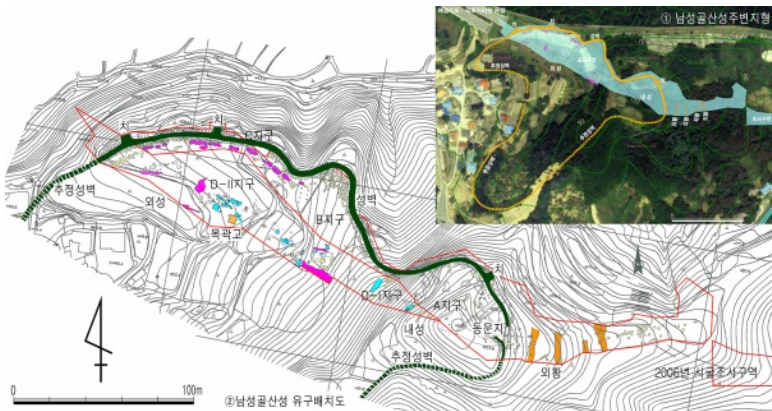
3) 세종 남성골산성

남성골산성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5리 남성골(南城谷) 일대에 위치하는데, 현재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로 행정 구역이 바뀌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 제9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남성골산성은 2000년 지표조사를 통해 존재가 알려졌다며, 2001년에는 일부지점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어 2006년에는 새로 도로공사구간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와 2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산성이 위치한 부강리는 금강의 본류가 남쪽의 부용봉을 휘돌아가며 곡류하는 북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남행하던 미호천이 금강과 합류하는 합강리가 위치한다. 산성의 바로 서쪽으로는 남행하는 백천이 금강과 합류하고, 그 동쪽으로 야트막한 구릉에 테뢰산성이 위치해 있으며, 산성의 바로 남쪽으로도 작은 지류가 서쪽으로 흘러 백천과 만나 금강으로 흘러들어간다. 남성골산성은 테뢰산성 바로 동쪽의 야산 구릉에 위치하는데,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말발굽모양 지형을 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터진 곳에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있다. 한편 산성이 위치한 곳은 금강 뱃길의 최상류에 해

8)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대형 직구옹과 양이부호 등 소량에 불과하다. 그런데 1997년 북벽지역에서 수습된 토기 중 일부는 고구려 토기로 추정되며(차용걸 외 1999: 도면 38), 1999년 조사시 출토된 유물 중 일부(차용걸 외 2002: 도면 73-①, ⑤)도 고구려 토기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향후 조사에서 더 많은 양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될 가능성이 크다.

당하며, 고대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역할을 하였다. 산성이 위치한 부용면 일대에는 저산성, 성재산성, 복두산성, 독안산성, 성산성, 노고봉산성, 애기봉산성 등 10여개의 삼국시대 성곽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용걸 외 2004: 25-27).



「그림 6: 세종 남성골산성 주변지형과 유구배치도」

(①: 국립국토지리원 지도 수정, ②: 차용걸 외 2004, 도면 2와 차용걸 외 2008, 도면 7을 합성하여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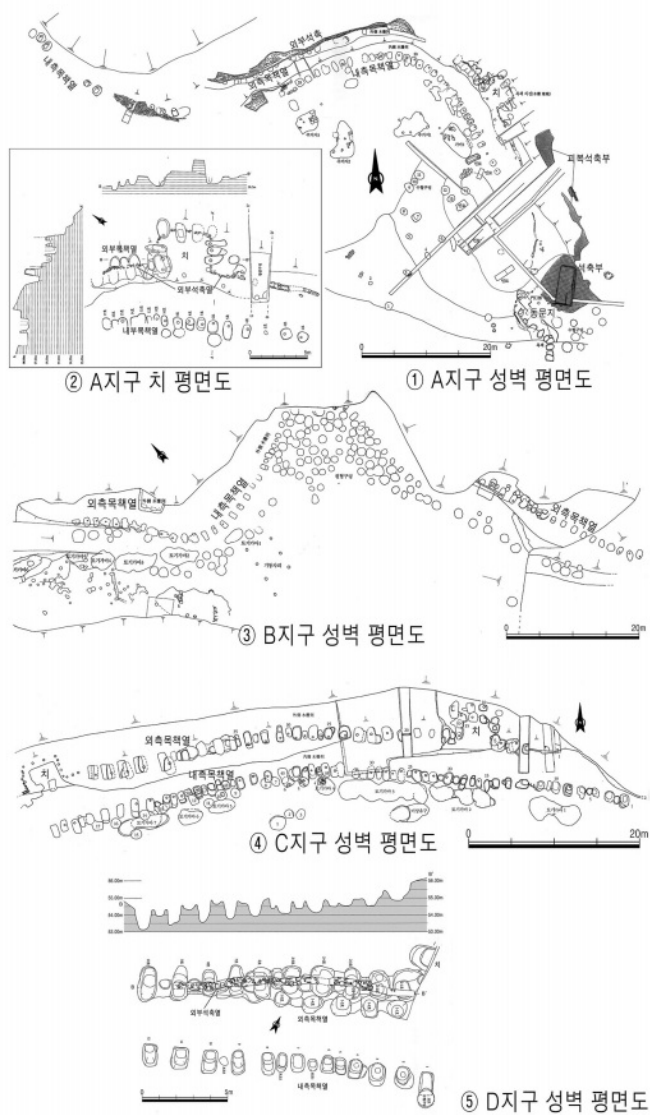
산성은 해발 100m내외의 주봉을 중심으로 축조하였는데, 북쪽은 매우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도 비교적 급경사를 이루는 좁은 능선이 이어져 있다. 한편 중심부의 서쪽과 서남쪽은 양쪽으로 가지모양의 좁은 능선이 이어지고 있어서 말굽모양을 연상하게 하며, 그 내부에 마을이 형성되어있다. 성벽은 중심부 봉우리를 둘러싼 내성과 서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구축한 외성으로 구분된다(그림 6-②). 발굴조사는 성 내부 중심부 서쪽지역의 북벽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보고서에는 성곽의 전체 형태

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이 위치한 지형으로 보아 성벽은 말밭굽형태의 지형 모두를 감싸고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그림 6-①), 성벽의 전체 둘레는 700m 정도로 추산된다(심광주 2014: 31).

A지구로 명명된 산성의 정상부에 북쪽에서는 2층의 목책열과 외부의 석축이 확인되었으며, 정상부 동북쪽에서는 치가 확인되었다. 치의 바깥쪽 목책열과 같은 평면에 석축부의 일부가 남아있다(그림 7-②). 정상부 동쪽으로는 급경사로 인해 목책공이 상당부분 유실되었으나 이중의 목책열과 외부 석축으로 구성된 성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상부 동쪽 성벽 최남단에는 성내부로 휘어지는 목책열과 석축이 확인되며, 이 지점 바로 동북방으로 장방형의 석단이 확인되는데, 이 지점이 동문지로 추정된다. 동문지 바로 바깥쪽으로는 4층의 외황이 조사되었으며, 그 바깥쪽 구릉에는 여러 기의 원형 수혈유구가 조사되었다(그림 7-①, ②).

B지구와 C지구로 명명된 중심부 서쪽의 북쪽 가지능선의 성벽도 이중으로 된 목책열과 외부의 석축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구조이며, 2기의 치도 확인되었다(그림 7-③, ④). D지구는 B지구와 C지구의 남쪽에 해당하며, 2006년도에 추가로 조사되었는데, 성벽의 구조는 다른 지점과 동일하다(그림 7-⑤). D지구 성벽은 C지구 서쪽부분의 치에서 이어지는 짧은 구간인데, 바깥쪽 목책열과 동일한 평면에 외부석축의 기초부가 남아있으며, 내부목책열과는 별도로 외부목책열 바로 안쪽에 보조 기둥을 세운 주공이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남성골산성의 성벽은 이중의 목책열과 외부석축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내외 목책열의 간격은 2.5~3.0m, 목주의 간격은 1.5~1.8m이며, 목주의 지름은 20~30cm 가량 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성골산성이 고구려 성으로 기능할 당시의 구조를 추정해보면 구릉의 사면과 평탄면에 내외 2열의 목책을 세우고 내부에 흙을 다져 채운 목책도니성이며, 성벽의 바깥쪽 기



「그림 7: 세종 남성골산성 각 지점별 성벽 평면도」

(①: 차용길 외 2004, 도면 3, ②: 차용길 외 2004, 도면 8,
③: 차용길 외 2004, 도면 58, ④: 차용길 외 2004, 도면
148, ⑤: 차용길 외 2008, 도면 20과 도면 24를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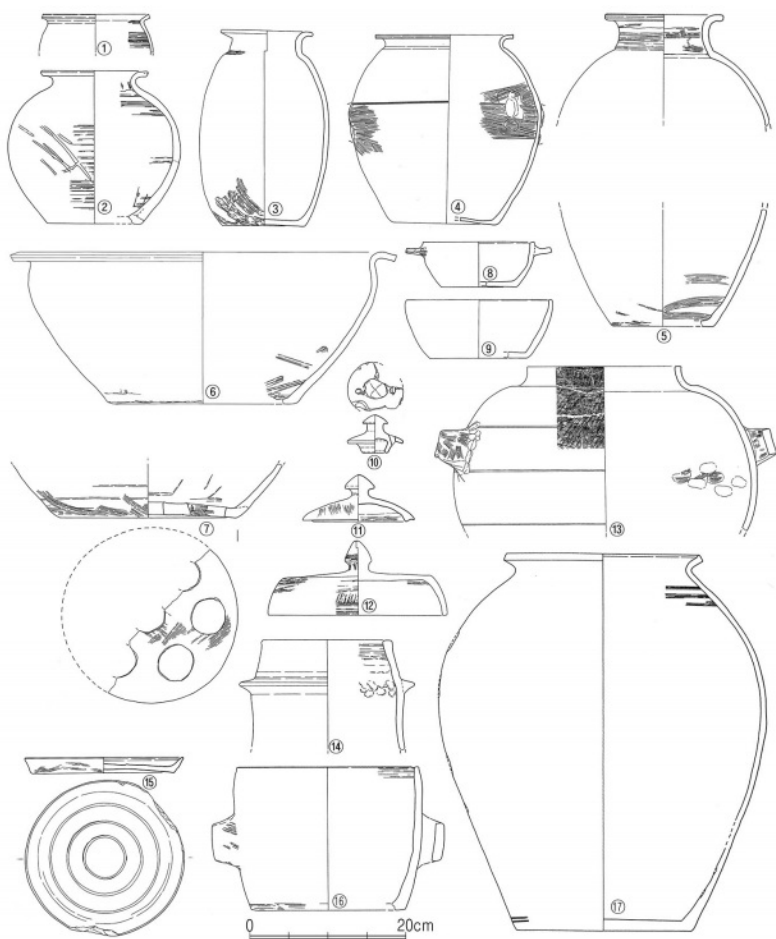
초부를 보강하기 위해 작은 석재와 점토를 섞어 쌓았다(차용걸 외 2004; 2008).

성벽 안쪽에서는 온돌이 설치된 주거지 8기, 원형수혈 251기, 수혈유구 25기, 토기가마 14기, 목곽고 1기 등 많은 수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금제이식 1점 및 다량의 토기류와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남성골산성에서 출토된 토기는 표 1과 같이 요약되는데, 모두 18개 기종 213점의 토기류가 확인되었다(그림 8). 기종별로는 호류와 옹류가 가장 많으나 단일기종으로는 동이류가 가장 많으며, 장동호류가 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기종별 구성비는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의 토기류 기종구성비와 유사하다.

남성골산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심발형토기류와 부형토기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토기의 태토는 니질이지만 부분적으로는 고운 사립이 소량 섞여있는 경우가 많다. 표면색조는 흑색이 가장 많으며, 회색과 황색이 그 다음이다. 문양이 시문된 토기는 7점인데, 문양의 종류로는 타날격자문과 격자상의 압문, 횡침선과 파상문이 결합된 것 등이 있다(표 1). 그밖에 표 1에 포함되지 않은 동체부편들 중 문양이 시문된 예가 상당수가 있는데, 타날격자문 위에 파상문이 시문된 것, 횡침선을 돌리고 아래에 파상문을 시문한 것, 횡침선을 돌리고 점열문을 시문한 것 등 문양의 종류는 단순한 편이다. 문양 외에 장동호로 추정되는 토기의 동체부에 부호가 새겨진 예도 있다(그림 9). 이상과 같은 남성골산성 출토 고구려 토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몽촌토성 출토 고구려 토기와 비슷하며,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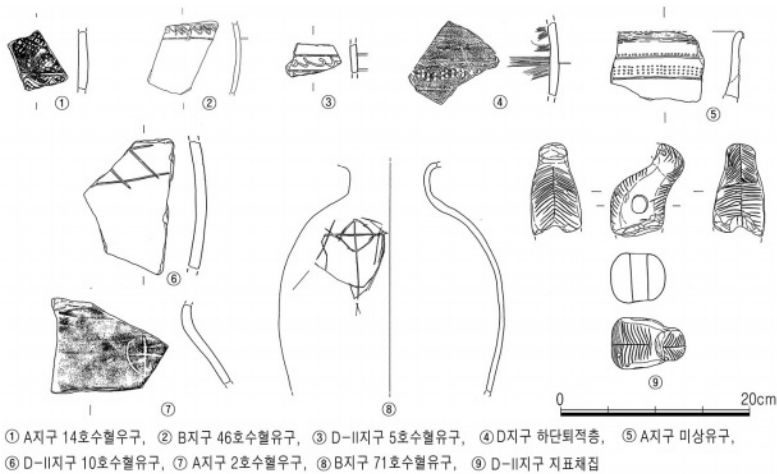
「표 1: 남성골산성 출토 고구려 토기 일람표」(숫자는 최소개체수)

區 分 器 種	최소 개체수	土 器 質			表面色			文樣		비 고
		粗 質	砂 質	泥 質	灰 色	黑 色	黃 色	有 文	無 文	
(兩耳)深鉢類	11	10	1		3	5	3		11	부호
長胴壺類	24			24	3	15	6		24	
兩耳附壺類	2			2	1	1			2	
壺類	12			12	4	6	2	2	10	암문, 횡침선+파상문
甕類	41		1	40	14	19	8	2	39	격자타날+횡침선, 타날선문
直口壺類	18			18	6	11	1		18	
直口甕類	2			2	1	1			2	
시루(甗)類	20			20	7	11	2	1	19	암문(격자)
釜形土器類	2	1	1		1		1		2	
동이(大鉢)類	51			51	14	34	3	2	49	격자타날
盥類	5			5		3	2		5	
종지류	5			5	4		1		5	
접시류	2			2		2			2	동심원문
耳杯類	1			1	1				1	
뚜껑(蓋)類	14		1	13	8	5	1		14	
盒類	1			1		1			1	
煙筒類	1			1	1				1	
圓筒形三足器類	1			1			1		1	
합 계	213	11	4	198	68	114	31	7	206	
		213			213			213		



- ① 심발(A지구 1호 주거지), ② 호(A지구 1호 수혈유구), ③ 장동호(B지구 온돌주거지), ④ 이부호(D-I지구 온돌유구),
 ⑤ 장동호(D-II지구 중간경사면퇴적층), ⑥ 둥이(B지구 96호 수혈유구), ⑦ 시루(2001년 지표채집), ⑧ 이배(2001년 지표채집),
 ⑨ 완(C지구 미상유구), ⑩ 뚜껑(D-II지구 10호 수혈유구), ⑪ 뚜껑(D-II지구 목곽고), ⑫ 뚜껑(A지구 1호 주거지),
 ⑬ 직구옹(D-I지구 온돌유구), ⑭ 부형토기(B지구 6호 토기가마), ⑮ 접시(D-II지구 목곽고), ⑯ 유개합(B지구 76호 수혈유구),
 ⑰ 옹(B지구 온돌주거지)

「그림 8: 세종 남성골산성 출토 고구려 토기류 각종」
 (차용걸 외 2004 및 차용걸 외 2008의 도면에서 발췌하여 정리)



「그림 9: 세종 남성골산성 출토 고구려 토기 문양 및 부호, 새모양 이형토기 각종」
(차용걸 외 2004 및 차용걸 외 2008의 도면에서 발췌하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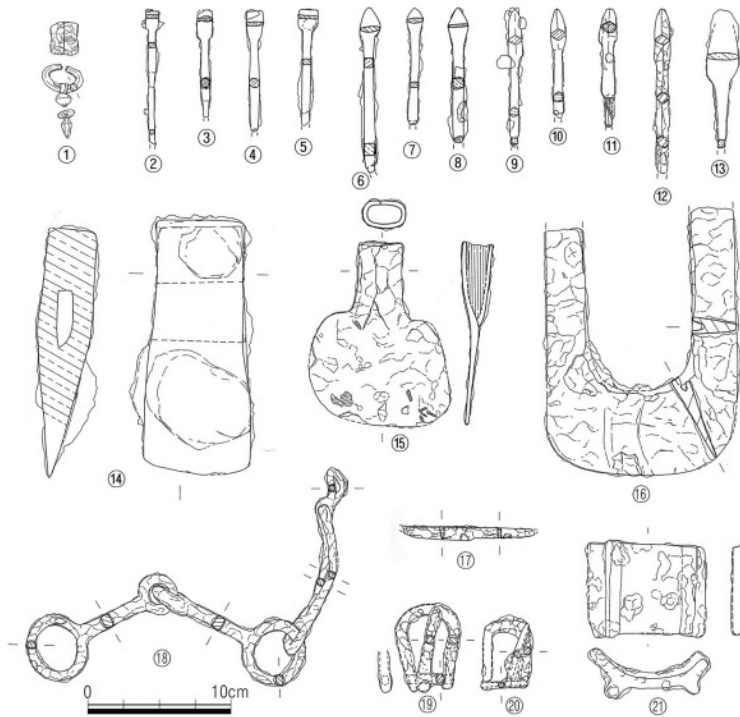
이상의 토기류 외에 여러 점의 토제 방추차와 토제벼루 1점이 출토되었으며, 새모양의 이형토기도 1점 출토되었다. 이형토기는 머리와 몸통의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머리에는 눈을 표현하였고, 머리와 몸통 전체에 선을 그어 깃털을 표시하였다(그림 9-⑨). 몸통에는 횡으로 구멍이 뚫려있으며, 그 뒤쪽으로 파손된 부분에는 상하로 구멍을 뚫었던 흔적이 남아있어, 막대기에 꽂아 세웠거나 막대기와 같은 형태의 물건을 꽂아 장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모양은 아니나 고구려 토기 중에 직육면체의 몸통에 종횡으로 구멍을 뚫은 토제품이 간혹 출토되며, 가까운 양주 태봉산보루에서도 1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발해 토기 중에도 같은 형태의 토제품이 종종 확인되는데, 원래는 남성골산성 출토품과 같은 동물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표 2: 남성골산성 출토 고구려 철기 일람표」(숫자는 최소개체수)

구분	鐵鏃	鐵斧	鐵鋤(살포)	U자형삽날	刀子	車轄	재갈	鉸具	기타	합계
수량	61	1	4	1	1	3	2	2	2	77

남성골산성에서 출토된 철기는 모두 77점으로 토기에 비해 종류나 수량이 적다(표 2). 철기의 종류는 철촉과 철부 등 무기류와 살포와 U자형삽날, 도자 등 농공구류, 재갈과 교구, 차관 등 차마구류로 구분되는데, 철촉 61점을 제외하면 출토 수량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10). 철촉은 크게 세장형촉과 광엽형촉으로 구분되는데, 세장형이 59점으로 주를 이루며 광엽형은 2점에 불과하다. 세장형은 촉두의 형태에 따라 착두형(鑿頭形)과 사두형(蛇頭形), 검신형(劍身形), 봉형(鋒形) 등으로 나뉘는데, 착두형이 29점으로 가장 많으며, 사두형이 16점, 봉형이 9점, 검신형이 5점 등이다. 이와 같은 철촉의 형태적 특징과 출토 수량은 6세기 전반의 아차산일원 보루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시기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철촉과 철부를 제외하면 무기류의 출토량이 매우 빈약한데, 유적의 점유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전투가 없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D-II지구 13호 수혈유구 주변 퇴적층에서 태환식 금제 이식이 1점 출토되었다(그림 10-①). 주환과 타원형 유환, 중간식과 수하식으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공구체형 중간식과 원판장식이 달린 추형 수하식으로 구성된 이와 같은 형태는 고구려 이식을 대표하는 형식이며, 5세기 대에 유행하였다(劉나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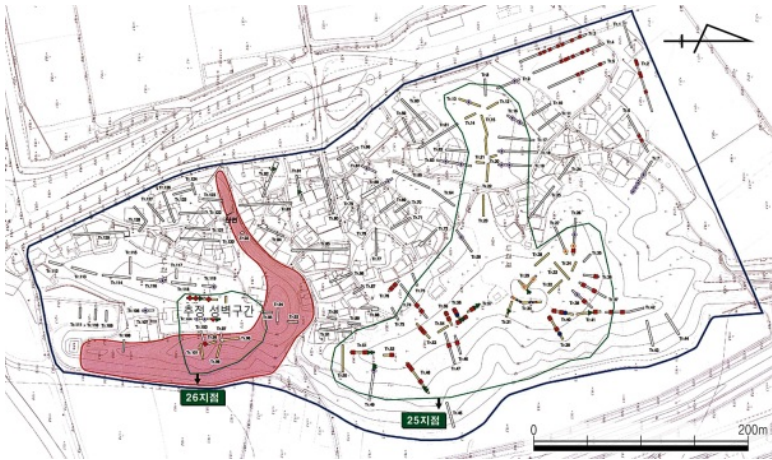
① 심발(D-II지구 중간경사면 퇴적층), ② 철촉(C지구 지표), ③ 철촉(A지구 1호 수혈유구), ④ 철촉(A지구 1호 외황), ⑤ 철촉(A지구 1호 외황), ⑥ 철촉(A지구 동문지), ⑦ 철촉(C지구 지표), ⑧ 철촉(A지구 동문지), ⑨ 철촉(C지구 지표), ⑩ 철촉(C지구 지표), ⑪ 철촉(A지구 1호 수혈유구), ⑫ 철촉(D-II지구 지표), ⑬ 철촉(B지구 온돌주거지), ⑭ 철부(A지구 16호 수혈유구), ⑮ 철서(D-I지구 1호 수혈유구), ⑯ U자형 삽날(D-II지구 5호 수혈유구), ⑰ 도자(D-I지구 7호 수혈유구), ⑱ 재갈(D-I지구 지표), ⑲ 교구(D-II지구 지표), ⑳ 교구(D-II지구 지표), ㉑ 차관(D-II지구 지표)

「그림 10: 세종 남성골산성 출토 금제이식 및 철기 각종」
(차용걸 외 2004 및 차용걸 외 2008의 도면에서 발췌하여 정리)

4) 세종 나성

세종 나성은 현 행정구역상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의 중앙역사공원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1년 성의 일부 지점에 대한 표본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中央文化財研究院 2013). 성은 남쪽으로는 금강 본류에 바로 인접해 있는 해발 40m 가량의 구릉에 입지하며, 성의 동쪽에는 작은 지천이 남행하여 금강에 합류하고, 동쪽에는 국도 1호선이 위치해있다. 나성이 위치한 구릉은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동쪽의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능선이 이어지는 지형이며, 가운데는 서쪽으로 트인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 말밭굽모양을 하고 있다. 2011년에 실시된 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릉의 남쪽구역에서 ㄱ자형 평면의 토성이 330m 가량 확인되었으며, 성벽은 판축 또는 성토에 의한 토성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中央文化財研究院 2013: 2015), 원래 토성은 구릉 전체를 둘러싼 남북으로 길쭉한 타원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그림 11). 시굴트렌치에서는 다량의 백제 토기편과 함께 고구려 토기편이 출토되어 이 성 역시 고구려가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세종 나성과 주변 지형도」
(中央文化財研究院 2013의 도면 4를 수정)

5) 대전 월평동유적

월평동유적은 백제 사비기에 축조된 석성인 월평동산성의 동남방에 위치하며, 월평동산성과 구별하기 위해 월평동유적이라고 칭하며, 남한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관방시설과 유사한 구조의 목책 및 토심석축성 등이 조사되었다(그림 12). 또한 월평동산성 기초 하부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는 원형 수혈이 조사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월평동유적과 관련된 시설로 이해된다.

월평동산성은 대전시 서구 월평동 산 20-1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 7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산성은 대전 분지의 서쪽에 치우쳐 있는데, 남쪽의 도솔산(해발 207m)에서 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구릉의 최북단 야트막한 봉우리에 위치하며, 성내 최고 높은 지점은 해발 100m가량 된다. 성의 서쪽으로는 구릉에 연하여 갑천이 북행하다 동쪽으로 휘어지며, 성의 동쪽으로는 유등천이 북행하여 서쪽으로 휘어져 갑천과 합류한다.

2001년 월평동산성의 남쪽의 고대지와 주변 성벽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를 통해 석심토축의 백제 사비기에 축조된 성벽과 외호 등이 확인되었으며, 성벽 아래에서는 고구려 토기와 함께 주혈 및 원형수혈유구 등의 유구가 조사되어 사비기 성벽이 축조되기 이전에 고구려의 관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李浩炯·姜秉權 2003).



「그림 12: 월평동산성과 월평동유적 유구배치도 및 성벽」

한편, 월평동산성이 조사되기 전 1990년 산성의 바로 남쪽 구릉에서 상수도확장공사 과정에서 고구려 토기가 수습되어 간단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발굴조사가 실시

되었다.⁹⁾ 월평동유적에서는 다수의 저장시설과 목곽고 1기 등과 함께 2기의 목책유구, 2기의 석축성벽 및 2기의 호 등 서로 다른 시기의 관방시설이 확인되었다(그림 12).

목책 1은 구릉의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해발 129~133m)을 따라 축조되었는데, 현재는 85m 가량이 남아있다(그림 12-②의 중앙부). 목책공은 풍화암반을 방형으로 굴착하여 만들었는데, 직경 1m, 깊이 1.1m 내외이며, 기둥의 지름은 15~30cm 가량 되고, 목주의 간격은 90cm 정도로 비교적 일정하다. 목책열의 서쪽으로 5~6m 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목책열과 평행으로 설치된 호 1이 조사되었는데, 원래 목책열 1과 같이 구축된 시설물로 생각된다. 호의 단면은 U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폭 5m, 깊이는 1~2m 가량되며, 남아있는 호의 총연장 길이는 110m 정도이다(국립공주박물관 외 1999: 30-35; 이한상 2015: 43).

목책 2는 목책 1이 위치한 구릉의 동쪽 사면에 위치하며, 내외 2열로 축조되었는데, 내외 목책열의 간격은 5m 가량으로 일정하다(그림 12-②의 상단부). 목책 2는 각각의 주공을 파고 목책을 세운 목책 1과는 달리 폭 80cm, 깊이 85cm 가량의 U자형 구를 길게 파고, 그 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목주를 세운 구조인데, 이와 같은 구조는 남성골산성의 A지구 외측 목책열에서도 확인된다(차용걸 외 2004: 36-39). 목주는 구 바닥에서 15~20cm 가량 더 깊이 파고 세웠으며, 목주의 지름은 30cm 내외이고, 간격은 2m 정도이며, 목주와 목주 사이에는 1.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보조기둥을 세웠다. 목책 2는 서쪽의 성벽 1을 축조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면서 목책 2의 상부가 삭평되었으며, 목책 2와 동일한 평면에 호 2를 설

9) 이 유적은 백제 월평동산성이 축조되기 이전에 조성된 산성 하부의 고구려 관방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조사상황으로는 동일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물의 성격 등으로 보아 월평동 유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치하였다(국립공주박물관 외 1999: 38). 목책 2는 구조상 남성골산성의 목책도니성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朴泰祐 2006: 81).

성벽 1은 목책 2의 안쪽 목책으로부터 3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목책 2와 나란히 남북방향으로 이어진다. 성벽 1은 구룡사면을 깊이 2m, 폭 5m 가량 파내어 기초부를 조성하였으며, 깎아낸 L자상 지형 안쪽을 따라 직경 30cm 내외의 기둥을 1.5m 간격으로 세운 후 그 사이에 할석을 쌓아 올린 구조이다(그림 12-③). 할석을 1~2단 쌓은 후에는 그 바깥쪽으로 점토를 다져 기초를 견고히 하였으며, 그 위에 다시 할석을 이용한 석축성벽을 구축하였다. 잔존하는 석축 성벽의 높이는 170cm 가량이지만, 성벽 아래에 무너진 석재를 감안하면 원래는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국립공주박물관 외 1999: 38-42). 성벽 안쪽으로 2m 가량 떨어진 지점에는 성벽과 평행하게 목주를 세웠던 주공이 확인되는데, 성벽 중간에 설치된 목주와 함께 영정주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구조의 성벽은 남성골산성에서도 확인되고, 홍련봉 2보루 등 아차산일원의 고구려 보루에서 흔히 보이는 구조이다(최종택 2013).

한편, 성벽 1의 바깥쪽에는 폭 5m의 호 2을 구축하였는데, 호 2의 평면은 목책 2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성벽 1과 호 2는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호 2의 폭은 4m, 깊이는 120cm 가량되고, 잔존길이는 50m 가량 된다.

성벽 2는 성벽 1에서 10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온 지점에 직선으로 축조하였는데, 잔존길이는 130m 가량되며, 성벽의 북쪽은 성벽 1과 겹쳐 있다. 성벽 2 역시 경사면을 L자상으로 굴토하여 지면을 평탄화한 후 축조하였는데, 성벽 기초부는 폭 70~80cm, 깊이 30~40cm 가량의 U자상 구를 파내고 1~2단의 석축을 쌓은 후 흙으로 덮어 기초를 단단히 하였다(그림 12-④). 성벽은 내외 2겹으로 축조하였는데, 내외 성벽의 구분이 뚜렷하다. 성벽의 폭은

1.2~1.4m이며, 잔존한 성벽의 높이는 최대 1.4m 가량이나 원래는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국립공주박물관 외 1999: 46). 이처럼 성벽을 2겹으로 쌓은 예는 아차산 홍련봉 1보루 등에서 확인되는데, 홍련봉 1보루에서는 안쪽 성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목주를 세운 주동이 확인되기도 한다(최종택 2013).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월평유적의 관방시설은 4종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하고 있으며, 축조 시점에도 차이가 있다. 가장 먼저 축조된 관방시설은 구릉 정상부 평탄면에 남북방향으로 축조된 1열의 목책열(목책 1)과 그 서쪽에 위치한 외호시설(호 1)로 백제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국립공주박물관 외 1999: 209-213; 李漢祥 2000: 608-609). 월평동유적에서 출토된 백제토기는 한성기 말에서 사비기에 해당하며, 월평동산성의 토심석축 성벽이 사비기에 축조된 것을 고려하면 목책 1은 5세기 후반에 백제가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시기의 시설은 유적의 가장 동쪽 사면에 위치한 이중의 목책열(목책 2)이며, 이어 목책 2 안쪽에 위치한 성벽 1과 바깥쪽의 호 2가 축조되었고, 마지막으로 구릉 평탄면 바로 동쪽에 남북방향으로 성벽 2가 축조되었다. 보고서에서는 목책 1은 5세기 후반, 성벽 1은 6세기 후반, 성벽 2는 7세기 초반을 중심연대로 추정하였다(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1999: 217). 그런데, 발굴조사에서 각 관방시설의 연대를 추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유구의 중복관계를 고려하였으나 이 역시 관방시설과 직접적인 중복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월평동유적의 목책 2를 남성골산성과 같은 구조의 목책도니성으로 보아 5세기 말에서 6세기경으로 비정하였으며, 성벽 1 역시 축조기법에서 목책 2와 같은 성격으로 이해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朴泰祐 2006: 91-92). 필자도 이와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후술하겠지만 출토된 고구려 토기의 연대가

5세기 후반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목책 2와 성벽 1은 475년 한성공함 직후 고구려에 의해 순차적으로 축조된 시설로 이해하고자 한다. 성벽 2의 연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지만 축조기법을 인접한 월평동산성의 토심석축성벽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6세기 후반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으나(朴泰祐 2006: 91), 성벽 2의 축조기법이 아차산 홍련봉 1보루와 유사한 면도 있어서 성벽 2 역시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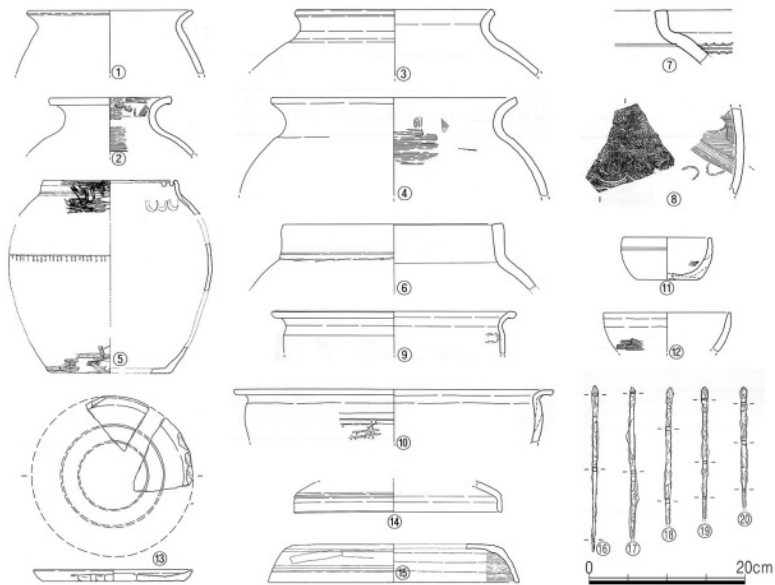
월평동유적에서는 소량의 고구려 토기편이 보고되었으나 월평동산성에서는 비교적 많은 고구려 토기편과 고구려 철축이 출토되었다. 월평동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류는 모두 30점이나 이들 중 구연부를 통해 개체 확인이 가능한 토기는 11개 기종 19점으로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區 分 器 種	최 소 개 체 수	土 器 質			表面色			文樣		비 고
		粗 質	砂 質	泥 質	灰 色	黑 色	黃 色	有 文	無 文	
長胴壺類	2			2	1	1			2	1점은 월평동유적(황색)
壺類	1			1	1				1	
甕類	4			4	3		1		4	
直口甕類	3			3	2		1	3		월평동유적, 점열+침선+ 파상문
시루(甗)類	1			1			1		1	
동이(大鉢)類	2			2	1	1			2	
종지(盞)類	1			1	1				1	
盃類	2			2	2			1	1	횡침선
뚜껑(蓋)類	2			2	2				2	
접시(皿)類	1			1	1			1		동심원문
합 계	19			19	14	2	3	5	14	

「표 3: 대전 월평동유적 출토 고구려 토기 일람표」

(숫자는 최소개체수)

월평동유적의 고구려 토기의 태토는 모두 니질이지만 고운 사립이 부분적으로 함유된 개체들이 많고, 토기 표면은 다소 거친 것도 일부 있다. 표면색조는 회색이 대부분이나 회색 중에는 부분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것들이 많이 있다. 문양이 시문된 토기는 6점으로 적지 않은 편인데, 문양의 종류는 횡침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파상문을 시문하는 것과 횡침선을 돌리고 위에는 점열문, 아래에는 파상문을 시문하는 것 등으로 단순하다. 접시의 바닥에는 동심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타날문이 시문된 토기는 없다. 장동호류와 호류 및 옹류, 동이류의 구연부는 밖으로 말리듯 둥글게 처리된 형태가



① 심발(월평동산성 성벽축조 이전 원지표), ② 장동호(월평동산성 성벽축조 이전 원지표), ③ 옹(월평동산성 성벽축조 이전 원지표), ④ 옹(월평동산성 성벽축조 이전 원지표), ⑤ 직구호(월평동유적 A47호 저장공), ⑥ 직구옹(월평동유적 F10호 저장공), ⑦ 직구옹(월평동유적 F19호 저장공), ⑧ 호 동체부편(월평동산성 성벽축조 이전 원지표), ⑨ 동이(월평동산성 미상유구), ⑩ 동이(월평동산성 성벽축조 이전 원지표), ⑪ 중지(월평동산성 성벽축조 이전 원지표), ⑫ 완(월평동산성 성벽축조 이전 원지표), ⑬ 접시(월평동산성 성벽축조 이전 원지표), ⑭ 뚜껑(월평동산성 지표), ⑮ 뚜껑(월평동유적 F7호 저장공), ⑯-⑳ 철촉(월평동산성 지표)

「그림 13: 월평동산성과 월평동유적 출토 고구려 토기 및 철촉 각종」
(국립공주박물관 외 1999 및 李浩炯·姜秉權 2003의 도면에서 발췌하여 정리)

거의 없다. 이러한 특징은 몽촌토성 및 남성골산성 출토 고구려 토기와 속성을 고찰하고 있으며, 그 연대는 5세기 후반, 역사적 정황을 고려하면 475년 직후에서 500년을 전후한 시점 사이로 추정된다(최종택 2013). 그밖에 철축을 비롯한 고구려 철기류가 출토되었으나 종류와 수량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그림 13).

2.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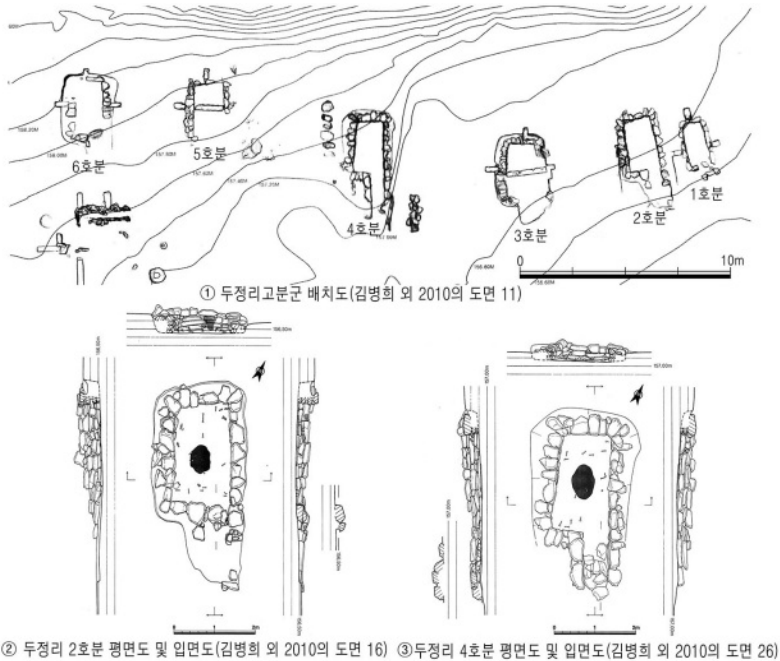
1) 충주 두정리고분군

충주 두정리고분군은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에 위치하는데, 2007년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김병희 외 2010). 고분군이 위치한 두정리는 국귀봉과 시루봉, 두루봉에서 이어지는 가지능선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멀리 마을 동쪽에는 달천이 북으로 흐르며, 북쪽에는 요도천이 동쪽으로 흘러 달천과 만나 남한강과 합류한다. 고분군에서 북쪽으로 진선거리 9km 지점에 중원고구려비가 위치하며, 동쪽 5km 지점에는 단월동고분군이 위치해 있다. 고분군은 두정리 두담마을 북쪽의 국귀봉에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남사면에 위치하는데, 평탄지에 가까운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고분이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155~157m이다.

「표 4: 두정리고분군 속성일람표」(단위: cm)

번호	명 칭	봉 분	장축비 (길이/폭)	석실 길이	석실 폭	석실 높이	연도 길이	연도 폭	출토유물
1	두정리 2호분	최대 7.1m	1.84	248	135	56	94	55	구형호, 관정
2	두정리 3호분	최대 6.1m	1.90	260	137	35			관정

3	두정리 4호분	최대 7.3m	1.82	238	131	50	140	65	은제지환, 관정
4	두정리 5호분	최대 5.7m	1.68	238	142	32			관정
5	두정리 6호분	최대 5.8m	2.03	250	123	29	120		흑색마연호, 관정



「그림 14: 두정리고분군 배치도 및 2호분과 4호분 평면도 및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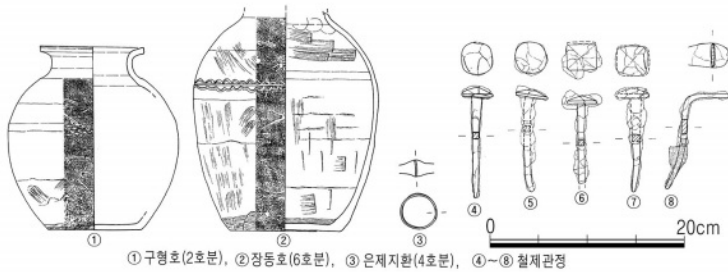
두정리에서는 모두 6기의 석실분이 조사되었는데, 1호분과 2호분은 하나의 봉분 안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김병희 외 2010: 153) 봉분이 유실되어 확실하지 않으며, 1호분은 다른 5기의 고분들과는 구조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쌍혈분 중에서 석실의 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없으므로 쌍혈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정리 1호분은 나중에 축조된 신라의 횡구식석실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고분은 모두 남북방향을 하고 있으며, 1호분을 제외하고는 대략 5m 내외의 거리를 두고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그림 14). 모든 석실은 반지하식이며, 바닥은 불다짐하여 단단하게 하였으며, 평면 장방형에 연도는 우편재이다(이하 표 4 참조). 벽면은 적당히 다듬어진 할석을 이용해 쌓았으며, 2호분에서는 벽면에 회를 바른 흔적이 남아있다. 2호분과 4호분의 연도에는 할석으로 폐쇄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천장가구는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다. 석실의 길이는 238~260cm, 석실의 폭은 123~142cm 가량으로 비교적 일정한 편이며, 장축비는 1.68이상으로 세장방형이다. 모든 석실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는데, 대체로 머리가 둥근 원두정이며, 머리가 없는 것도 있다. 그밖에 4호분에서는 은제 지환이 1점 출토되었는데, 평양 안학궁터 2호분에서 유사한 형태의 청동제 지환이 출토된 바 있으며(김일성종합대학 1973: 310~311), 인근의 단월동 5호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청동제 지환이 1점, 단월동 10호분에서는 같은 형태의 은제 지환 2점이 출토되었다(崔茂藏 1994: 22, 35).

두정리 2호분에서는 구형호가 1점, 6호분에서는 흑색마연 장동호가 1점 출토되었다(그림 15). 2호분에서 출토된 구형호는 고산동 11호분 출토품과 형태적으로 유사한데, 두정리 2호분 출토품이 몸통이 약간 길고 최대경이 동체부 중앙에 있어 고산동 11호분 출토품보다는 다소 이른 형태이며, 대략 5세기 중엽경으로 편년할 수 있다.¹⁰⁾ 구경은 10.5cm, 저경은 9.5cm, 높이는 18.9cm이다. 6호분

10) 두정리고분군 출토 토기류를 니질 태토의 황색토기라는 점에서 보정동 2호분이나 청계리고분 출토 토기보다 늦은 것으로 판단한 견해가 있다(白種伍 2009: 243). 남한지역의 고구려 토기는 흑색 표면에 여러 종류의 문양이 시문되는 유형과 황색 니질이면서 무문양인 것의 두 유형으로 분류되고, 전자에 비해 후자가 늦은 시기의 것임은 사실이다(崔鍾澤 2006: 288~291). 그러나 이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기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두정리2호분 출토 구형호를 6세기 이후로 편년할 수는 없다.

에서 출토된 장동호는 구연부가 결실된 채로 출토되었는데, 의도적인 훼손의 흔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면은 부분적으로는 적갈색을 띠지만 대체로 흑색이며, 아래위로 마연하여 암문효과를 내었다. 어깨에는 횡침선을 돌리고 그 위와 아래에 각각 1조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저경은 11.3cm, 잔존 높이는 11.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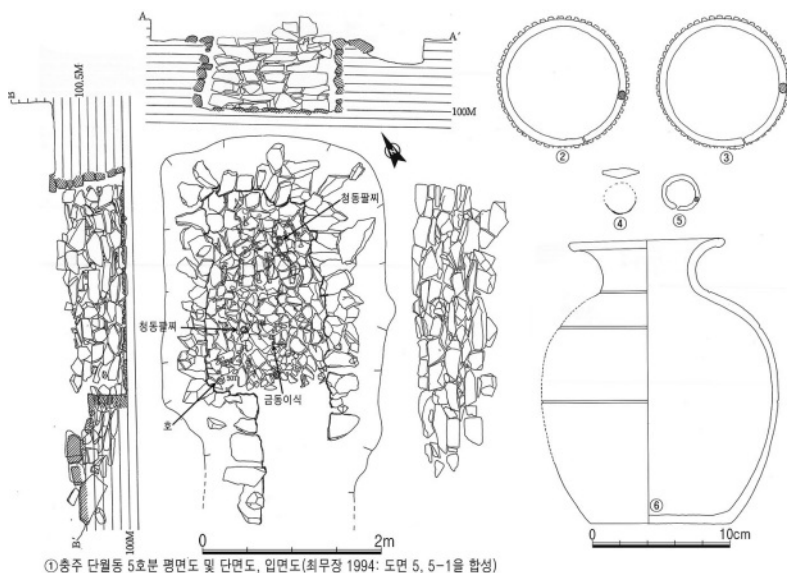
「그림 15: 두정리고분군 출토유물 각종」
(김병희 외 2010의 도면에서 발췌하여 정리)

2) 충주 단월동고분군

충주 단월동고분군은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산 5-1번지 일원의 야산 구릉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100m 가량 된다. 1993년에 건국대학교 단월동캠퍼스 부지 조성과 관련된 지표조사를 통해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崔茂藏 1994). 고분은 모두 7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5호분과 10호분에서 고구려 토기와 기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나머지 5기의 고분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이다. 한편 1994년에는 단월동고분군의 북쪽과 북서쪽에서도 고분이 조사되었으나, 모두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고분으로 밝혀진 바 있다(崔茂藏 1995).

단월동 5호분은 조사지역 중간부의 남서방향 구릉 말단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4m 떨어진 지점에 10호분이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

9.6m 떨어진 곳에 4호분과 9호분이 위치해 있다. 5호분은 지표를 굴광하고 축조하여 석실 바닥은 지하에 있으나 완전한 지하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석실은 북동-남서 방향이며, 남쪽에 위치한 연도는 동벽과 이어지는 우편재 연도이다. 석실과 연도 모두 할석을 횡적하여 축조하였는데, 할석 사이의 틈은 작은 할석을 이용해 메웠다. 동벽과 북벽 일부는 7단 정도가 남아있는데, 모서리 부분은 5단 이후부터 모를 죽이며 내경하게 축조하였다(그림 16-①). 바닥 전면에는 작은 할석을 깔고 회를 발라 관대를 마련하였다. 석실의 크기는 250×190cm이고, 연도는 150×70cm 가량 된다(崔茂藏 1994: 20).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석실의 크기는 261×158cm이며, 석실의 장단비는 1:1.65로 세장한 편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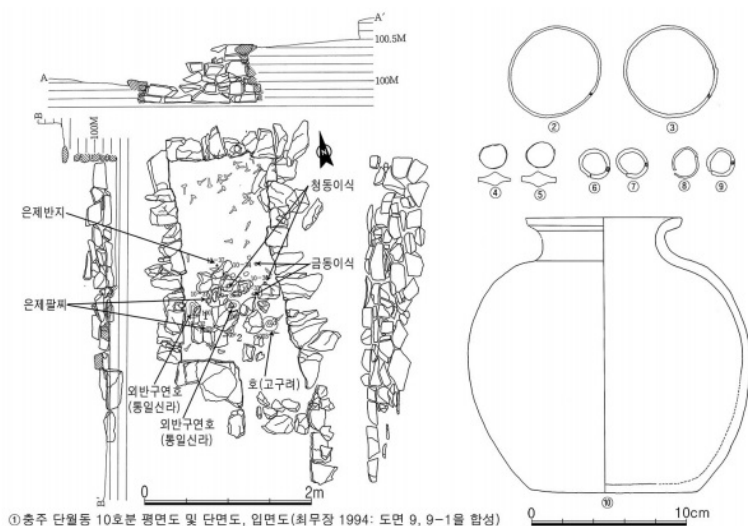
「그림 16: 단월동 5호분 및 출토유물 각종」
(崔茂藏 1994의 도면에서 발췌하여 정리)

11) 보고서에서는 바닥면의 크기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나 도면으로 제시된 석실 바닥면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다(崔茂藏 1994: 53의 도면 5-1).

석실내부에서는 2개체로 추정되는 인골의 일부가 출토되었으며, 동쪽의 인골을 남성, 서쪽의 인골을 여성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실 내부에서는 50여점의 관정이 출토되었으며, 남성의 경골 북쪽에서 청동제 팔찌 1점이 출토되었고, 여성의 경골 남쪽에서도 청동제 팔찌 1점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팔찌는 2점 모두 같은 형태로 외면에 눈을 도드라지게 새겼는데, 외경은 7.5cm, 내경은 6.1cm 이다(그림 16-②, ③). 또한 연도에서 5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금동제 이식 1점이 출토되었으며(그림 16-⑤), 여성의 경골편 남쪽에서 청동제 반지 1점이 출토되었다(그림 16-④). 그밖에 석실의 남서쪽 모서리에서 구형호 1점이 출토되었는데, 니질태토의 회백색이며, 동체부 중앙과 어깨, 목에 각각 1조의 침선을 돌려 장식하였고, 구연부는 밖으로 말아 접었다(그림 16-⑥).

단월동 10호분은 5호분의 북서쪽으로 4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실의 장축 방향은 5호분과 동일한 북동-남서 방향이다. 연도는 우편재로 남쪽에 위치한다. 석실 벽은 대체로 할석을 횡적하였으며, 틈새는 작은 할석으로 메웠다. 바닥에는 관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1.5cm 두께로 석회를 발라 마감하였다(그림 17-①). 보고서에서는 석실의 남쪽부분에는 3기의 부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崔茂藏 1994: 32-33), 출토유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 이 고분을 재사용하면서 만들어진 시설로 생각된다. 석실의 규모는 280×130cm, 연도의 규모는 160×80cm 가량 된다. 그러나 석실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면 240×120cm로 석실의 장축비는 1:2.0으로 매우 세장한 형태이다.¹²⁾

12) 보고서에서는 바닥면의 크기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나 도면으로 제시된 석실 바닥면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다(崔茂藏 1994: 68의 도면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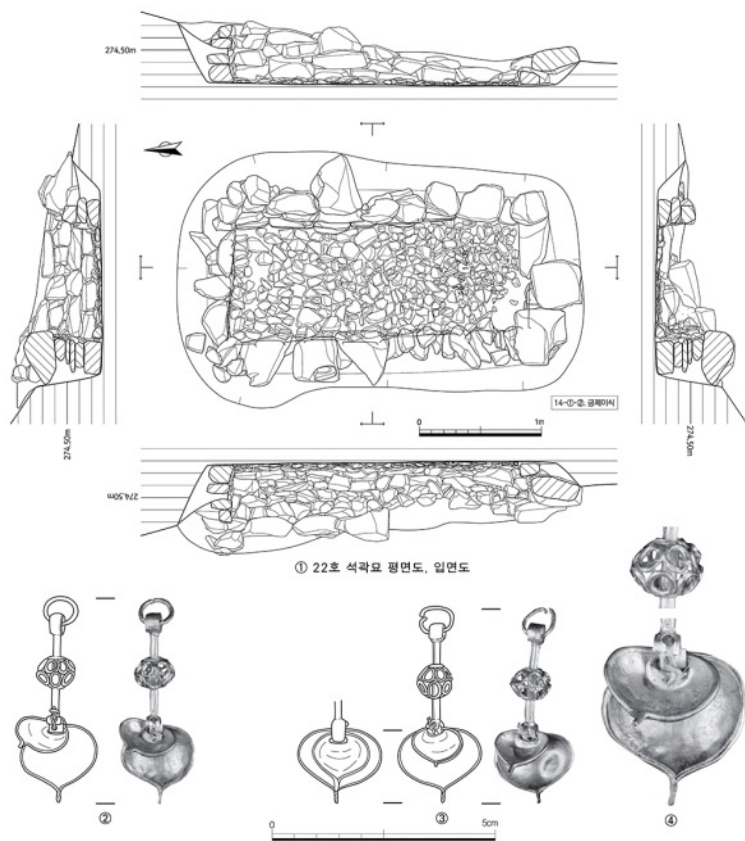


①충주 단월동 10호분 평면도 및 단면도, 입면도(최무장 1994: 도면 9, 9-1을 합성)

「그림 17: 단월동 10호분 및 출토유물 각종」

(崔茂藏 1994의 도면에서 발췌하여 정리)

단월동 10호분에서는 50여점의 관정과 은제 팔찌 2점, 은제 지환 2점, 청동제 이식 2점, 청동제 이식 2점, 철도자 4점과 외반구연호 2점, 구형호 1점 등 비교적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그림 17-②~⑩). 이 중 보고서의 1호와 2호 부곽에서는 각각 외반구연호 1점씩이 출토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며, 고구려 석실분을 통일신라시대에 재사용할 때 부장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은제 팔찌와 은제 지환, 금동제 이식 및 청동제 이식 역시 통일신라시대에 유입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은제 지환의 경우 같은 형태의 은제 이식이 인근의 두정리 4호분에서 출토된 바 있고, 단월동 5호분에서도 같은 형태의 청동제 지환 1점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고구려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연도쪽 석실 내부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구형호는 회흑색의 니질토기로 문양은 없으며,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단부는 밖으로 말듯이 접어서 마무리 하였다(그림 17-⑩).



「그림 18: 제천 교동 22호분 평·입면도 및 금제이식 및 금제이식 세부」(호서문화유산연구소 2020: 도면 39, 40)

3) 제천 교동고분

충북 제천시 교동 산13번지 일원에 위치한 교동유적은 근린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조사되었는데, 유적이 위치한 곳은 해발 310m의 나지막한 구릉으로 유적의 동쪽에는 고암천이 남북으로 흘러 남쪽

의 장평천과 합류한다. 유적의 동남쪽 사면에서 삼국시대 이후 석실묘 12기와 석곽묘 59기가 조사되었으며, 석실묘는 주로 능선사에 위치하고, 석곽묘는 곡간부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다. 이 중 6호와 22호, 47호 석곽묘에서 모두 4점의 금제이식이 출토되었다(호서문화유산연구소 2020). 이식이 출토된 3기의 석곽묘는 장방형으로 다듬은 할석으로 벽체를 조성하였으며, 별도의 관대나 시상은 없으며, 바닥 전체에는 할석을 깔았다. 석곽의 규모는 215×90cm(6호분), 240×94cm(22호분), 232×110cm(47호분)로 대체로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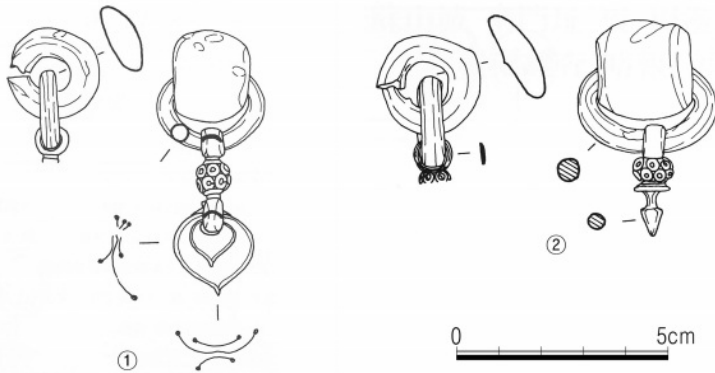
6호분과 47호분에서는 중간식과 수하식이 없는 태환식 주환과 세환식 주환이 각 1점씩 출토되었으며, 22호분에서는 주환이 없는 이식 2점이 출토되었다. 2점 모두 유환-연결금구-중간식-연결금구-수하식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며, 전체 길이는 4.4cm와 4.6cm로 크기와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그림 18). 중간식은 여러 개의 원형 고리를 연접한 공구체형으로 고구려 특유의 형태이고, 수하식은 3개로 크기가 서로 다른 심엽형 금판으로 가장자리에는 금판을 접어 붙이고 하단부는 꼬아서 뾰족하게 만들었다. 중간식과 수하식은 금판을 둥글게 말아 만든 연결금구로 연결하였는데, 일반적인 고구려 이식에 비해 연결금구가 길다는 특징이 있다(호서문화유산연구소 2020: 257~263).

4) 진천 회죽리 및 청원 상봉리유적

이상에서 살펴본 유적 외에도 중원지역에서 채집된 고구려 유물이 보고된 예가 있는데, 유적의 성격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맥락으로 보아 고구려 고분으로 추정된다. 1963년 충북 진천군 만승면 회죽리에서 채집된 금제이식은 주환-유환-중간식-수하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고구려 태환이식이다(그림 19-①). 중간식은 소환연접구체이며, 수하식은 크기가 다른 심엽형 장식 3매로 구성

하였다. 전체 길이는 6.2cm이다(박영복 외 1990: 586). 형태적인 특징으로 보아 5세기 후엽이나 6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劉나리 2015: 84).

1976년 충북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113번지에서 채집된 금제이식은 원래는 한 쌍이 출토되었으며, 유구는 고분으로 추정된다(박영복 외 1990: 585). 진천 회죽리 채집품과 마찬가지로 주환-유환-중간식-수하식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중간식은 소환연접구체이며, 수하식은 원반이 달린 추형을 이루는데, 이러한 형태의 수하식은 고구려 이식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적인 것이다(그림 19-②). 전체 길이는 5.1cm이다. 형태적인 특징으로 보아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劉나리 2015: 84).



「그림 19: 진천 회죽리(①) 및 청원 상봉리(②) 금제이식」
(박영복 외 1990: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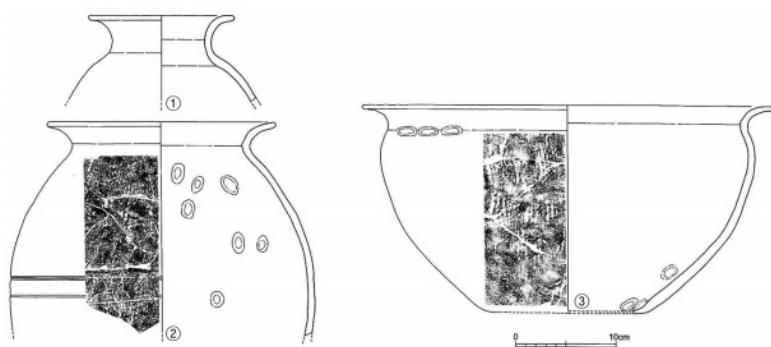
3. 생활유적

1) 진천 송두리유적

대모산성에 바로 인접한 북측의 송두리유적에서 몇 점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조사는 대모산성 바로 북쪽을 지나는 국도 21호선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위해 실시되었는데, 수혈주거지와 주혈, 집수시설, 구상유구 및 저습지 등이 조사되었다. 수혈주거지 등의 유구들은 주로 원삼국시대 이후 백제시대에 걸쳐 사용된 것이지만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대모산성과 함께 고구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일부 지점에서 6세기 중엽 이후의 신라 토기가 출토되어 신라시대까지 사용된 유적으로 추정된다(노병식 200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5).

고구려 토기는 송두리유적 동쪽지역의 유물산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장동호와 장동옹, 동이 각 1점씩이다(그림 20). 3점 모두 태토는 정선된 니질이고, 장동옹과 동이는 외부에 승문을 타날한 후 지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장동옹의 동체에는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장동호는 구경 12.0cm, 장동옹은 구경 22.6cm이며, 동이는 구경 40.8cm, 높이 20.7cm 이다. 제작기법이나 구연부의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송두리유적의 고구려 토기의 연대는 대모산성에서 채집된 고구려 토기와 같은 5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



「그림 20: 진천 송두리유적 출토 고구려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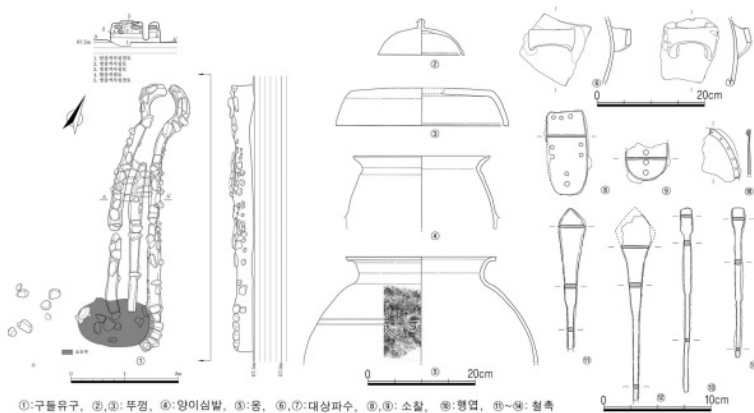
각종(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5: 도 78)

2) 세종 대평리유적

세종 나성 남동쪽의 대평리유적에서 백제 주거지와 함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의 토기가 파편 상태로 전체 기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태토로보아 5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韓國考古環境研究所 2017: 8-9).

3) 충주 탑평리유적

국립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는 ‘고대 중원경 종합학술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전116-6번지 외 4필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발굴조사에서 고구려 구들유구와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었다(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13: 11). 탑평리유적은 충주시가지 서북방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흐르는 남한강의 바로 좌안에 위치한다. 유적의 서북방 1km 지점에는 중원 고구려비가 위치하고, 바로 서남쪽에는 탑평리 칠층석탑이 위치한다. 또한 유적의 남쪽으로 달천의 좌안에는 두정리고분군이 위치하며, 동남방으로 달천의 북안에는 단월동고분군이 위치한다.



「그림 21: 충주 탑평리유적 구들유구 및 출토유물」

각종(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3: 도면 44~48에서 발췌하여 정리)

탑평리유적의 고구려 구들유적은 조사구역 남동쪽의 백제시대 1호주거지가 폐기된 후 주거지 상부의 북동쪽에 조성되었다. 구들은 20~30cm의 천석과 점토를 섞어쌓았는데, 구들의 너비는 0.7~1.1m, 높이는 0.4m, 잔존 길이는 5.1m 가량 된다(그림 21-①). 구들의 아궁이는 유실되었으나 남아있는 소토의 범위로 보아 고래의 진행방향과 직교하도록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각이 남아있다. 고래는 2줄이며, 북쪽으로 갈수록 고래가 좁아져 외줄고래가 되며, 그 끝에 원형 배연부가 설치되었다(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13: 89).

건물지의 전체 윤곽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들 주변에서 여러 점의 고구려 토기와 철촉, 행엽, 소찰 등 철기류가 출토되었다(그림 21-②~⑭).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뚜껑류, 양이심발류, 옹류 등이며, 대부분 회갈색의 니질토기이다. 옹의 동체부에는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그 위에는 점열문을 시문하였으며, 횡침선 아래에는 중호문을 음각하였는데, 몽촌토성의 고구려 토기류와 유사하다. 옹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과 양이심발의 존재 등으로 보아 탑평리유적의 고구려 토기는 5세기 중엽이나 후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IV. 중원지역 고구려 유적의 역사적 함의

앞에서 중원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유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를 통해서 각 유적의 시간적 위치를 고찰하고, 고분과 관방유적의 구조적 특징과 그 역사적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중원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토기는 태토나 문양 등에 있어서 대체로 동일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되는 고구려 토기는 제작기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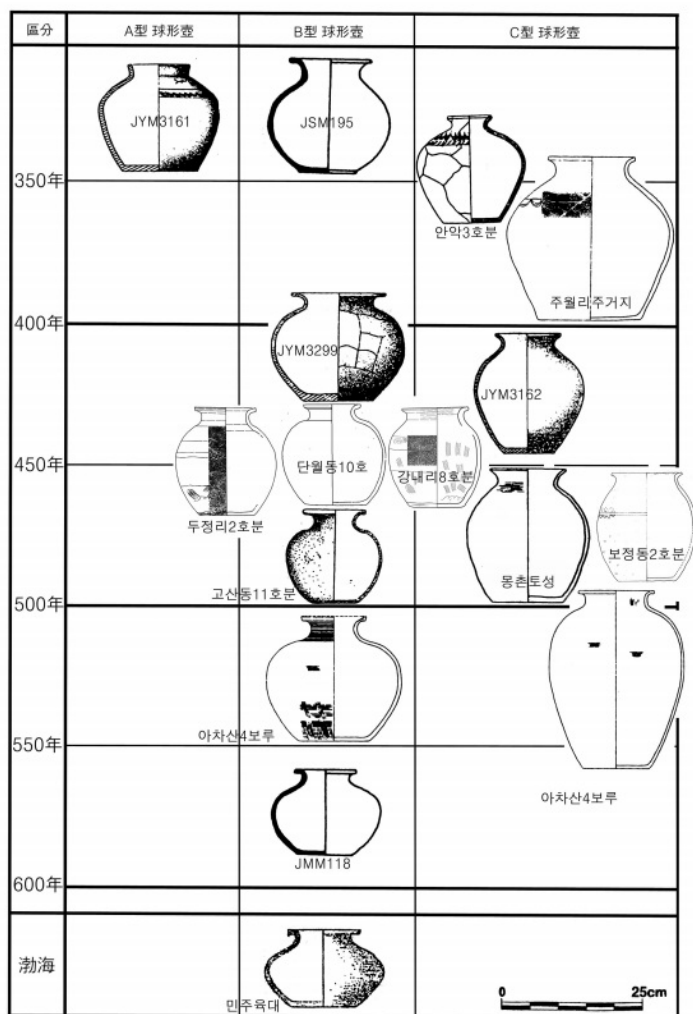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崔鍾澤 2002; 2006; 梁時恩 2003). 첫 번째 부류의 연대는 대체로 5세기 후엽으로 추정되는데, 황색조의 토기가 상대적으로 적고, 니질 태토에도 고운 사립이 소량 섞인 경우가 많이 확인된다. 또 이 부류의 토기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토기에 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문양의 종류도 음각 횡선문과 점열문, 중호문, 파상문 등이 단독 또는 결합하여 시문되고, 일부에는 승문이나 격자문, 선조문 등이 타날되기도 한다. 이러한 토기가 주로 출토되는 유적은 몽촌토성과 은대리성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부류는 표면색이 황색인 토기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심발형토기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니질 태토의 토기가 대부분이다. 또 이들 유적에서는 음각으로 시문된 토기는 거의 없으며, 반대로 격자문이나 연속고리문 등의 압문이 시문된 토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부류의 토기는 주로 구의동보루, 아차산 4보루, 아차산 3보루, 시루봉보루, 흥련봉 1, 2보루, 호로고루, 독바위보루 등에서 출토되며, 6세기 전반이 중심연대이다(崔鍾澤 2006). 중원지역의 남성골산성, 월평동유적, 대모산성, 송두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첫 번째 부류와 제작기법상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상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 중원지역 고구려 산성과 주변유적의 토기류는 5세기 후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두정리고분군 중 2호 석실에서 출토된 구형호의 경우 고구려 토기 구형호류 B형에 해당되는데, 고산동 11호분 출토품과 형태적으로 유사하고, 두정리 2호분 출토품이 몸통이 약간 길고 최대경이 동체부 중앙에 있어 고산동 11호분 출토품보다는 다소 이른 형태이며, 대략 5세기 중엽경으로 편년된다(崔鍾澤 2011). 단월동 10호분 출토 구형호 역시 형태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서 같은 연대로 편년할 수 있다(그림 22).

지금까지 중원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고분은 두정리고분군과 단월동고분이 있다. 단월동고분은 파괴가 심하여 구조 특징을 자세히

살피기 어려우나 두정리고분을 통해 구조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두정리고분은 평탄면에 가까운 구릉 말단부 사면에 입지하며 열상으로 배치되어 입지와 분포상의 특징에 있어서 일반적인 고구려 고분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고분의 평면은 세장방형으로 연도는 모두 우편재이며, 석실과 연도는 할석으로 쌓고 일부는 회를 발라 마감한 것도 있다. 석실의 바닥은 불다짐을 하였고, 관대 또는 시상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모든 고분에서 관정이 출토되었다. 단월동고분 역시 세장방형 평면에 우편재 연도를 가지고 있다.

남한지역 고구려 고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남한지역의 고분은 장축비 1.6을 기준으로 세장방형석실과 장방형석실로 구분되며, 묘실의 평면형태와 바닥처리, 관대의 유무 및 관정을 비롯한 장구류의 출토여부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세장방형 묘실의 고분의 대부분은 불을 놓아 바닥을 다졌으며, 관대는 없고 장구류가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장방형고분은 다소 복잡하지만 바닥처리를 하지 않고, 관대(또는 시대)를 설치하고 장구류가 출토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과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세장방형고분은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고, 장방형의 고분은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崔鍾澤 2011). 두정리고분군과 단월동고분군의 석실은 모두 세장방형의 고분과 구조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서 다른 세장방형 고분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배경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22: 고구려 토기 구형호류 편년표」(© 최종택)

지금까지 중원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성곽은 진천 대모산성, 청주 정북동토성, 세종 남성골산성, 세종 나성, 대전 월평동유적 등 4 곳에 불과하며, 세종 남성골산성과 대전 월평동유적에 대해서는 부

분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전모가 밝혀진 유적은 없다. 그러나 각 유적은 입지와 구조적인 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¹³⁾

중원지역의 고구려 성곽은 산으로 둘러싸인 평탄한 분지에 형성된 야트막한 구릉에 입지하며, 주변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흐르는 교통의 결절점에 해당된다. 또한 성곽이 입지한 구릉은 삼면이 높고 한 쪽이 트인 말굽형 지형을 이루고 있는 점도 공통적이다. 성벽의 구조는 유적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목책을 특징으로 한다. 남성골산성에서는 2중의 목책열이 조사되었으며, 월평동유적에서도 2중의 목책열이 확인되었고, 간략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진천의 대모산성에서도 트렌치상에서 주혈이 확인되었다. 세종 나성에서는 주혈 등 목책의 흔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성토한 토축 성벽이 확인되었는데, 향후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목책이 조사될 가능성이 크다.

목책은 성 안팎으로 2열로 배치되어 있는데, 목책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남성골산성을 발굴한 차용걸 등은 이 2중 목책열의 내부에 흙을 채우고 바깥쪽에 이를 보강하기 위한 석축을 부가한 목책도니성으로 추정하였다(차용걸 외 2004). 반면에 심광주는 남성골산성의 2중 목책열 하단부에만 흙을 채우고 외부에 석축으로 보강한 후 안팎의 목책열 사이를 종장목과 횡장목으로 엮은 다음 상단부는 목재로 연결하여 성벽과 같은 구조를 만든 것으로 추정하였다(심광주 2014). 두 주장의 차이는 목책열 내부를 흙으로 채웠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차이인데, 심광주는 목책열 내부를 흙으로 채우고 외부에 석축을 한 경우는 토심석축성으로 부르며, 이 경우 목책은 영정주로 칭하고 있다

13) 청주 정북동토성은 입지와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른 성곽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향후 발굴조사가 추가로 진행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광주 2014). 그러나 발굴된 유구에서 목책열 내부에 흙을 채웠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치 않아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아차산의 홍련봉 2보루에서는 내외 2중의 목책 사이를 결구한 횡장목과 종장목의 흔적이 확인되고, 바깥쪽 목책의 외면에 2중의 석축성벽을 축조한 형태가 확인되며, 안쪽 석축 사이에는 목주흔이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된다. 또한 홍련봉 1보루에서는 2겹의 석축 외곽에 또 다른 주철이 확인되어 3열의 목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최종택 2013). 이러한 점으로 보아 홍련봉 1, 2보루의 2중 목책열은 기본적으로 토심성벽을 구축하기 위한 영정주의 기능을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기존에 목책으로 부르던 시설은 목주 또는 영정주로 칭하는 것이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홍련봉 1, 2보루의 경우 보루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안쪽의 목책만 존재하는 시기가 있었는지는 좀 더 자료를 기다려보아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아무튼 홍련봉 1, 2보루의 예를 통해 본다면 남성골산성의 목책 역시 토심석축성벽의 구조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서도 논의를 정리한 것처럼 남성골산성의 성벽 구조가 목책도니성 외부 기저부에만 석축을 부가한 것인지, 목책 하부만 흙을 채우고 외부에 석축을 부가한 것인지, 또는 월평동산성의 1차 석축성벽이나 홍련봉 1, 2보루의 성벽과 같이 목책이 영정주의 역할을 한 토심석축성벽인지 등에 대한 결론은 쉽게 내리기 어렵다.

한편 월평동유적에서는 2차 목책열이 2중 구조로 확인되나 바깥쪽에 석축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보다 늦게 축조된 1차 성벽에서는 영정주로 사용된 주둥이 확인되고, 이후에 축조된 2차 성벽은 2겹의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안쪽 석축에서 주둥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월평동유적의 조사자는 1열과 외호로 구성된 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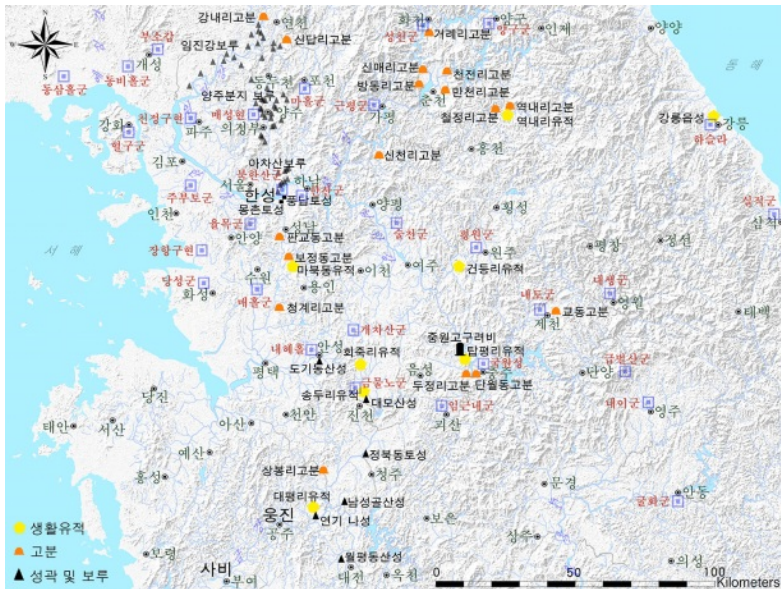
목책을 5세기 후반, 주동이 있는 1차 석축 성벽은 6세기 후반, 2점의 석축으로 구성된 2차 성벽은 7세기 초를 중심연대로 파악하고 있다(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1999: 217). 필자는 출토된 고구려 토기와 유구의 구조를 통해 볼 때 2점으로 된 2차 목책과 주동이 있는 1차 성벽은 5세기 후엽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점의 석축으로 구성된 2차 성벽도 고구려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월평동유적의 경우 고구려에 의해 2열의 목책(목주)으로 이루어진 성벽이 먼저 축조되고, 나중에 주동이 있는 석축성벽이 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까지의 고구려 토기에 대한 편년관에 따르면 월평동산성의 고구려 토기는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고, 구체적으로는 475년 이후부터 5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짧은 시기에 서로 다른 구조의 성벽이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중원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유적의 구조와 연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원지역 고구려 유적의 축조를 고구려의 남진 과정과 연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원지역의 고구려 유적은 5세기 중엽의 두정리고분군과 단월동고분군, 5세기 후엽의 성곽으로 구분된다. 5세기 중엽의 두정리고분군 및 단월동고분군은 중원고구려비와 함께 고려하면 475년 고구려의 한성공함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의 남한지역 진출은 평양 천도 이후 본격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4세기 후반 고구려는 중원지방 진출을 위해 북한강 상류의 춘천과 홍천과 횡성, 원주를 거쳐 남한강수계를 통과하여 충주로 이르는 교통로를 확보하였으며, 400년 광개토왕의 신라의 구원 이후에는 북한강유역을 영역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금경숙 2001). 두정리고분군과 함께 연천 강내리고분군과 춘천 방동리 2호분 등 세장방형 고분은 5세기 중엽 고구려의 중원진출 및 영역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5세기 후엽의 중원지역 고구려 성곽은 475년 고구려의 한 성공함 이후의 남진과정에서 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475년 장수왕의 한성공함 이후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이때 장수왕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간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즉, 475년 고구려에 의해 한성이 함락된 이후에도 한강이남지역을 백제가 영유하였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몽촌토성에서 고구려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생각은 재고를 요하게 되었다. 475년 한성공함 이후 장수왕과 고구려 군은 돌아갔으나 일부는 몽촌토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진천의 대모산성과 세종 남성골산성, 세종 나성, 대전 월평동유적 등이 몽촌토성과 비슷한 5세기 후엽의 고구려 유적으로 편년되는 점은 고구려가 몽촌토성을 거점으로 하여 금강유역으로 남진을 계속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몽촌토성에서 확인된 특수한 구조의 지상건물지와 의례용 토기의 존재를 통해 몽촌토성에 주둔한 지휘관이 상당한 신분의 소유자였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몽촌토성이 거점성의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상정할 수 있다. 진천의 대모산성과 세종 나성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남성골산성과 월평동유적 역시 조사된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거점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거점성들을 중심으로 고구려는 한강 이남지역의 영역화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崔鍾澤 2008).

관방유적 외에도 최근 남한지역에서는 성남 판교동, 용인 보정동, 화성 청계리 등지에서 5세기 후엽에 해당하는 고구려고분이 발굴되었으며, 아울러 춘천 우두동, 홍천 철정리와 역내리, 원주 건등리, 용인 마북동 등 고구려 취락유적도 속속 조사되고 있다. 중원지역에서도 관방유적과 두정리고분군 외에도 충주 탑평리, 진천 송두리, 세종 대평리 등지에서 5세기 후엽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는 취락유적이 조사되고 있어서 고구려의 남진과정이 일시적이고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직적이고 준비된 것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최근 진천 대모산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사에 위치한 안성 도기동산성(기남문화재연구원 2018)에서도 5세기 후엽의 고구려 성곽이 조사되는 등 고구려의 남하 루트와 관련된 새로운 유적이 속속 조사되고 있다(그림 23). 지금까지 조사된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의 분포를 통해 볼 때 475년 한성을 공함한 고구려 군은 몽촌 토성을 거점으로 하여 성남-용인-안성-진천-청주-청원-연기지방을 거쳐 대전까지 진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3: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 및 『삼국사기』지리지 고구려 지명 분포도」(© 최종택)

V. 맺음말

이상에서 중원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유적의 구적조 특징과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원지역 고구려 유적의 시간적 위치와 성격 및 역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중원지역 또는 중원문화권의 공간적 범위와 정체성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래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대체로 현재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일원을 공간적 범위로 하되, 경기, 강원, 경북 등 주변 지역을 외연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과 통시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지역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견해도 상존하며, 이는 중원문화의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중원지역은 국가체의 중심으로 기능한 적이 없으며,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변경이자 교차점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중원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변경, 포용과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중원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을 제대로 조사·연구·정비·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원문화의 시공간적 범위와 정체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중원지역의 고구려 유적은 관방유적과 고분군 및 생활유적 등이 있으며, 관방유적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충주지역에 위치한 고분군은 대체로 5세기 중엽경으로 편년되는데, 이는 5세기 중엽경 북한강수계를 따라 충주지역을 확보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밖에 진천 대모산성과 송두리유적, 청주 정북동토성, 세종 남성골산성, 세종 나성과 대평리유적, 대전 월평동유적 등은 5세기 후엽의 짧은 시간 동안에 사용된 것으로 475년 한성공함 이후 웅진 방면으로 남하한 고구려 군이 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밖에 진천 회죽리와 청원 상봉리에서도 고구려 금제이식이 채집되었는데, 남성골산성에서 출

토된 금제이식과 함께 당시 남하한 고구려 군의 위계가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상의 고구려 유적은 존속기간이 길지 않아 대체로 6세기를 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백제 왕실의 안정과 한성수복 노력의 결과 500년을 전후한 시점에 다시 한강 이북의 아차산 일원으로 후퇴하여 보루를 구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중원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유적은 5세기 후엽 고구려와 백제의 각축 양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증거물이며, 최근의 조사 성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중원지역에서 더 많은 고구려 유적이 조사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된다.

[투고일: 2022.11.21, 심사개시일: 2022.11.21. 게재확정일: 2022.12.09.]

【참고문헌】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08, 『중원의 산성』.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09, 『중원의 고분』.
- 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2013, 『忠州 塔坪里遺蹟(中原京 추정지)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청주박물관·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중원문화의 숨결』, 중원문화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전시회 도록.
- 금경숙, 2001, 「高句麗 領域으로서의 北漢江 流域 - 靺鞨문제와 관련하여-」, 『韓國史學報』第 11號, 高麗史學會.
- 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安城 道基洞山城』. 發掘調査報告 第6冊.
- 김병희·유용수·김정인·오운석, 2010, 『忠州 豆井里遺蹟-충주 클린 에너지파크 조성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 김영진, 1995, 「中原文化圈의 範圍와 特性」, 『中原文化學術會議 結果報告書-中原文化圈의 位相定立과 發展方向』,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研究叢書 第8冊.
-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및 민속학강좌, 1973,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노병식, 2003, 「鎭川 松斗里 百濟初期遺蹟 發掘調査 概報」, 『호서지역의 성곽』, 제8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pp.81-98.
- 劉나리, 2015, 『高句麗 金製耳飾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丙燾, 1972, 『韓國史』古代編, 乙酉文化史.
- 閔德植, 1980a, 『鎭川 大母山城의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閔德植, 1980b, 「鎮川 大母山城의 分析的 研究」, 『韓國史研究』29, 韓國史研究會.
- 朴淳發, 2004, 「湖西地域 平地·野山城에 대하여: 築造時點 및 性格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10輯.
- 박영복·김성명, 1990, 「중부지역 발견 고구려계 귀걸이」, 『昌山金正基博士華甲紀念論叢』.
- 朴泰祐, 2006, 「月平洞山城 城壁 築造技法과 時期에 대한 檢討」, 『百濟文化』35輯, 公州大學校百濟文化研究所.
- 白種伍, 2009, 「南韓內 高句麗 古墳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第35輯, 高句麗渤海學會.
- 성정용, 2021, 「중원역사문화의 형성과 그 의미」, 『융합의 공간, 中原-중원역사문화의 정체성』, 중원역사문화총서 I,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신형식, 1996,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본 중원문화권의 새로운 인식」, 『충북 100년 中原文化學術會議 結果報告書』, 研究叢書 第10冊.
- 신형식, 2001, 「중원문화권의 정체성」, 『중원문화 학술회의 결과 보고서-통일시대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과 개발의 차별화 전략』, 중원문화연구총서 제24책.
- 심광주, 2014, 「고구려 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방안』, 한강문화재연구원 · 광진구, pp.19~53.
- 梁時恩, 2003, 『漢江流域 高句麗土器의 製作技法에 대하여』,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漢祥, 2000, 「大田 月坪山城 출토 高句麗土器」,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鶴山 金廷鶴博士頌壽紀念論叢, pp.605~622.
- 이한상, 2015, 「대전 월평산성 발굴의 의의와 과제」, 『고대 갑천 유역 사람들의 삶과 죽음』, 2015년도 백제문화학술제 발표자료

집,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李浩炯·姜秉權, 2003, 『大田 月坪洞山城』, (財)忠清文化財研究院.

趙順欽·李庠燮, 2013, 『清州 井北洞土城 III -北門址 發掘調査-』, (財)中原文化財研究院.

조유진, 1995, 「역사고고학상으로 본 중원문화」, 『中原文化學術會議 結果報告書-中原文化圈의 位相定立과 發展方向』,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研究叢書 第8冊.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및 생활권2-4구역 내 저습 8유적(북쪽) 연기 나성리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中央文化財研究院, 2015, 『燕岐 羅城里遺蹟』, 發掘調査報告 第221冊.

車勇杰, 1984, 「方形土城의 二例」, 『尹武炳博士 回甲紀念 論叢』.

차용걸, 1996,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본 중원문화권의 새로운 인식 토론포의」, 『충북 100년 中原文化學術會議 結果報告書』, 研究叢書 第10冊.

차용걸·박중균·한선경, 2008, 『清原IC~芙蓉面 道路工事區間內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2006年度 追加 發掘調査-』, 中原文化財研究院.

車勇杰·盧秉湜, 1996, 『鎭川 大母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차용걸·노병식·강만식·한병길·조순흠, 1999, 『清州 井北洞土城 I -1997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차용걸·노병식·박중균·한선경·김주미, 2002, 『清州 井北洞土城 II -'99年度 發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차용걸·박중균·한선경·박은연, 2004,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忠北大學校博物館.

崔茂藏, 1994, 『忠州 丹月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建國大學校

博物館.

崔茂藏, 1995, 『忠州 丹月洞古墳群 2次發掘調査報告書』, 建國大學校博物館.

崔鍾澤, 2002, 「夢村土城 內 高句麗遺蹟 再考」, 『韓國史學報究』第12號.

崔鍾澤, 2006, 「南韓地域 高句麗 土器의 編年 研究」, 『先史와 古代』24, 韓國古代學會.

崔鍾澤, 2008,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百濟研究』47,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崔鍾澤, 2011, 「南韓地域 高句麗古墳의 構造特徵과 歷史의 意味」, 『한국고고학보』81집, 한국고고학회, pp.584~611.

최중택, 2013,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출판사.

최중택, 2016, 「호서지역 고구려유적의 조사현황과 역사적 성격」, 『백제연구』63집.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5, 『中原文化學術會議 結果報告書-中原文化圈의 位相定立과 發展方向』, 研究叢書 第8冊.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6, 『충북 100년 中原文化學術會議 結果報告書』, 研究叢書 第10冊.

충북대학교박물관, 2015, 『청주 정북동토성 해자 터 연장발굴조사 약보고서-동북벽 구간, 남문지 외측~서북벽 구간-』.

충북대학교박물관, 2018, 『청주 정북동토성 IV-해자터 발굴조사』, 학술총서 제129책. 『

韓國考古環境研究所, 2017, 『燕岐 大平里遺蹟(本文 1)』, 韓國考古環境研究所 研究叢書 第70輯.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5, 『鎭川-鎭川 I·C間 道路 擴·鋪裝工事區間 內 松斗里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學術調査報告書 第163冊.

한병삼, 1995, 「中原文化圈의 位相定立과 發展方向」, 『中原文化學術會議 結果報告書-中原文化圈의 位相定立과 發展方向』, 忠北

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研究叢書 第8冊.

호서문화유산연구소, 2020, 『제천 교동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제천 교동 산13번지 유적』, 조사보고총서 제55책.

【Abstract】

Historical meaning of Koguryo relics in the Jungwon cultural area

Choi, Jongtaik

As the 'Jungwon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was included in the recently implemented 'Special Act on Maintenance, etc. of Historic and Cultural Areas', discussions on the spatio-temporal scope and identity of the Central Plains Historical and Cultural Area are becoming more active. In this article, the discussion on the spatial scope of the Jungwon region was reviewed, and the historical meaning was examined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Koguryo relics in the Jungwon region.

There have already been several discussions about the spatial scope and identity of the Jungwon region or the Jungwon cultural area, and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area of Chungcheongbuk-do is the spatial scope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district, but includes surrounding areas such as Gyeonggi-do, Gangwon-do, and Gyeongsangbuk-do as an extension. However, there is also a view that it should be strictly limited to a narrow area centered on Chungju from the historical context and diachronic point of view, and this is related to the identity of Jungwon culture. Historically, the Jungwon region has never functioned as the capital of an ancient state, and is characterized as a border and intersection of Koguryo, Baekje and Sill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refore,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on the

identity of Jungwon culture in terms of border area, inclusion and convergence.

Koguryo military sites in Jungwon region are situated on the major traffic routes and located in the low-lying hill at c. 100m asl. Revealed from the Namseonggolsanseong and Wolpyeongdong sites, the typical Koguryo fortress in South Korea was constructed with two-three rows of wooden barricades infilled with trampled earth and stone walls outside. Koguryo pottery usually has the black coloured surface with a simple rim and inscribed patterns or dots on the body of the pottery. They shared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Koguryo potteries excavated from Mongchon earthen wall. Thus they are dated to late 5th century AD.

It appears that Koguryo site was constructed by Koguryo army chasing Baekje which moved its capital to Ungjin after Hanseong conquest in 475 AD by King Jangsoo and had been occupied until 500 AD.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pattern of Koguryo sites excavated in the southern Hangang region, Koguryo army moved southward through the route of Seongnam – Yongin – Anseong – Jincheon – Cheongju – Cheongwon – Yeongi – Daejeon, putting pressure on Baekje while residing in Mongchon earthen wall. However, the discovery of tombs and village together with military sites indicate that the aim of southern expansion was not only to put military pressure but also to acquire the southern territory. However, short-term occupation period of each site indicates that Koguryo failed to territorialize the newly acquired southern region and the army had retreated to the north of Han river around 500 AD. The relics of Koguryo investigated in the Jungwon region are meaningful in that they are physical evidence of history that preserves the aspect of the rivalry between Koguryo and Baekje in the

later part of the 5th century.

Keywords: Jungwon region, Jungwon cultural area, Hoseo area, Koguryo, fortress, tomb